

정확한 정답 친절한 해설

6단원 상황에 맞는 표현

(1) 올바른 문장 표현

시험 문제 미리 보기

본문 9~14쪽

- 1 ④ 2 ① 3 피동, 높임, 시간, 인용 4 ④
5 ③ 6 ③ 7 ④ 8 ⑤ 9 ② 10 ⑤
11 ③ 12 ④ 13 해설 참조

- 1 ④ | 이 글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문법 요소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밝히고 있는 설명문이다.
- 2 ① |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여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문법 요소를 바르게 알고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 3 피동, 높임, 시간, 인용 | (가)의 ‘올바른 문장을 사용하는 것 이 ~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4 ④ | 번역 투의 잘못된 피동 표현이 사용된 문장은 사용을 자 양해야 한다.
- 5 ③ | ‘먹었다’는 ‘먹게 하였다’의 의미를 지닌 사동 표현이다.
- 6 ③ | ‘뵈다’라는 객체 높임의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서술어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 7 ④ | ④는 주격 조사 ‘께서’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되었다.
- 8 ⑤ |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오갔다’라는 과거 표현 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9 ② | ②는 ‘-아/-어 버리다’를 통해 완료상을 실현한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고 있다’로 실현하는 진행상이다.
③ ‘-아 있다’로 실현하는 완료상이다.
④ 진행상에 대한 설명이다.
⑤ 완료상에 대한 설명이다.
- 10 ⑤ |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쓰 는 ‘-데’는 ‘-더러’와 같은 의미이다. ‘-다고 해’의 줄임말은

‘-데’가 아니라 ‘-대’이다.

11 ③ | 직접 인용이 사용된 문장이므로 ‘라고’를 붙여야 한다.

12 ④ |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에는 ‘-대’ 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책을 많이 읽으라고 전달했다. (간접 인용)

② 내가 밤새우지 말라고 했잖아. (간접 인용)

③ 그는 “여기가 어디냐?”라고 물었다. (직접 인용)

⑤ 큰형이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고 하며 슬퍼했어. (간접 인용)

13 ‘들리자’는 용언 ‘듣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며, ‘모시고’는 객체 높임의 특수 어휘 ‘모시다’가 사용 된 높임 표현이다. | ‘들리자’는 주어가 다른 주제에 의해 동작 을 당하는 표현이며, ‘모시고’는 서술어의 객체인 목적어를 높 이는 표현에 해당한다.

학습 활동 문제로 확인

본문 16쪽

- 1 ③ 2 ① 3 ④ 4 해설 참조

1 ③ |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잡혀 졌다’와 ‘잡히어졌다’는 같은 표현으로, 피동 접미사 ‘-히-’와 ‘-어지다’를 중복해서 사용한 과도한 피동 표현이다.

2 ① | 주어와 관련된 대상의 신체 부분, 소유물 등을 높임으로 써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주체 높임의 간접 높임 표현이 사용된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② 제가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③ 회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④ 이 신발은 사이즈가 작습니다.

⑤ 환자분의 약이 이쪽에서 나옵니다.

3 ④ | ‘자리에 앉아 주시면’은 앞으로 일어날 행동에 대해 요구 하는 것이므로, ‘출발했습니다’라는 과거 시제 표현과 어울리 지 않는다.

- 4 친구들은 모든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저를 열정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 직접 인용문에 사용되었던 큰따옴표가 없어지고, 직접 인용격 조사 ‘라고’가 간접 인용격 조사 ‘고’로 바뀌었다. | 직접 인용은 큰따옴표를 사용하여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인용격 조사 ‘(이)라고’를 사용하며, 간접 인용은 말하거나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재해석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인용격 조사 ‘고’를 사용한다.

내신 대비 문제

본문 17~19쪽

- 01 ⑤ 02 ① 03 ⑤ 04 ④ 05 ⑤
06 ⑤ 07 ④ 08 ④

주관식 1 이, 하, 리, 기 2 주체, 객체, 상대, 상대 3 어휘

4 발화시, 사건시 5 진행상, 완료상 6 데, 대

- 01 ⑤ | 이 글은 문법 요소의 개념과 실현 방법 및 올바른 쓰임에 대해 설명한 글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 02 ① | ‘범인이 체포되었다.’는 ‘체포’라는 명사에 ‘-되다’가 붙어 실현된 피동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② ‘꼬였다(꼬이었다)’는 ‘꼬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③ ‘풀렸다(풀리었다)’는 ‘풀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은 피동 표현이다.

④ ‘잡혔다(잡히었다)’는 ‘잡다’에 피동 접미사 ‘-하-’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⑤ ‘찢겼다(찢기었다)’는 ‘찢다’에 피동 접미사 ‘-기-’가 붙은 피동 표현이다.

- 03 ⑤ | ‘쓰여진’은 피동 접사 ‘-이-’와 ‘-어지다’가 중복해서 사용된 과도한 피동 표현으로, ‘쓰인’으로 고쳐 써야 한다.

- 04 ④ | 높이지 말아야 할 대상인 ‘커피’를 높여서 어색한 문장이 되었으므로, ‘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05 ⑤ | ‘어제 그렸던 그림이 다 말랐네.’에서는 사건시가 발화시 보다 앞서 있는 과거 시제가 사용되고 있다.

- 06 ⑤ | 현재와 비교하여 다르거나 단절된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는 어미는 단순 과거 표현인 ‘-았-/었-’이 아니라, ‘-았었-/었었-/였었-’이다.

- 07 ④ | 세훈이가 나의 생각을 묻는 간접 인용문에서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로 고쳐야 한다.

- 08 ④ | 학생 3은 지금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 문장들을 찾아 고쳐 보자고 말하고 있으므로, ‘-고 있다’의 진행상이 ‘사용하다’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합시다’는 상대 높임법 중 격식체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② ‘무엇입니까?’에서는 종결 어미를 통해 청자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③ ‘전달되어지도록’은 ‘-되다’와 ‘-어지다’가 동시에 사용되어 이중 피동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

⑤ 간접 인용은 인용격 조사 ‘고’를 사용하므로, ‘찾아보자고’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2) 글쓰기와 담담기

시험 문제 미리 보기

본문 21~24쪽

- 1 ⑤ 2 덧칠, 위장술 3 ⑤ 4 ⑤ 5 ③
6 ⑤ 7 해설 참조 8 ⑤ 9 해설 참조

- 1 ⑤ | 글쓴이는 퇴고를 글쓰기의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에 비유하고 있다.

- 2 덧칠, 위장술 | 글쓴이는 ‘퇴고가 외면을 화려하게 만들기 위한 덧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술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 3 ⑤ | ‘당신도 아마 그런 시간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독자에게 경험을 떠올리게 하여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4 ⑤ | ‘참담한 기쁨’은 역설적 표현으로 ①~④가 이에 해당한다. ⑤는 반어적 표현으로, 도저히 잊지 못하겠다는 마음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다.

- 5 ③ |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퇴고 과정을 예로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돋고 고쳐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6 ⑤ | 김소월은 <진달래꽃>의 퇴고 과정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간결하게 줄이고 삭제하고자 노력했다.
- 7 ‘고하고히’를 ‘고이’로, ‘한아름’을 ‘아름’으로 수정하여 간결하고 정리된 느낌을 준다. 또한 ‘발거름마다’를 ‘걸음걸음’으로 수정하여 생동감이 느껴지게 했다. | 김소월이 3년 동안 <진달래꽃>을 퇴고한 과정은 (다)에 잘 나타나 있다.
- 8 ⑤ | 이규보, 한승원, 니체, 최명희 등 유명 작가의 퇴고에 대한 생각을 인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스스로 묻고 답하는 자문자답을 통해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문장의 도치가 드러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③ 자연물에 대한 인식의 전환 과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인용과 비유 등은 사용되고 있으나, 대상의 개념을 정의의 방식으로 설명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 9 퇴고는 고쳐 썼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 (라)의 ‘시를 고치는 일은 옷감에 바느질을 하는 일이다. 끊임없이 고치되, 그 바느질 자국이 도드라지지 않게 하라.’에서는 퇴고를 옷감에 바느질하는 일에 비유함으로써 퇴고를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학습 활동 문제로 확인

본문 27쪽

1 ③ 2 ③ 3 ⑤

- 1 ③ | 글쓴이는 이 글에서 다양한 영상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다.
- 2 ③ | 자신의 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진 후 신중하게 퇴고해야 한다.
- 3 ⑤ | 김소월은 오랫동안 퇴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불필요한 시어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중복된 표현을 조금 더 참신하게 표현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3음보의 음격이 살아나고, 생동감 넘치는 한국적 언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내신 대비 문제

본문 28~30쪽

01 ③ 02 ⑤ 03 해설 참조 04 ② 05 ⑤

06 ③ 07 ③

주관식 1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매체

2 전 과정

3 점검, 조정 4 진달래꽃, 퇴고

5 전체, 부분

6 퇴고 7 바느질, 천의무봉

- 01 ③ | 이 글에는 ‘은폐’, ‘훼손’, ‘침윤’ 등의 한자어가 활용되었으며 명령형으로 단호하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표현이 나타난다.

- 02 ⑤ | <진달래꽃>의 퇴고 과정이 예로 제시되어 있을 뿐, 글쓰기의 각 단계에 따른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마)에서 이규보, 한승원, 니체, 최명희 등 유명 작가들의 퇴고에 대한 생각을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② (나)에서 글쓴이가 습작기에 경험했던 기쁨과 낭패감을 예로 들어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③ 글 전체적으로 간결한 문체와 명령형 어미를 자주 사용하여 단호하고 강렬한 느낌을 주고 있다.
 ④ (가)에서 글을 쓰는 과정과 퇴고는 씨앗을 심고 돌보아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라고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 03 시를 멋지게 완성했다고 생각하여 기쁜 마음이 들었다가, 다음 날 다시 읽어 보았을 때에는 시를 보는 눈이 달라져 만족하지 못하고 참담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 (나)의 퇴고에 대한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참담한 기쁨’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 04 ② | 유명 작가들도 퇴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으나, 유명 작가들의 퇴고 방법을 따르라는 내용은 이 글에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마)에서 작가는 작품을 고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③ (나)와 (마)에 자신의 작품을 무작정 고치려 하지 말고 뜰이 들 때까지 기다리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④ (마)에 다른 사람(잠재적 독자)에게 작품을 보여 주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⑤ (마)에서 오래 걸리더라도 옷감에 바느질을 하듯이 꿰맨 자국이 도드라지지 않게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다.

- 05 ⑤ | 김소월이 고쳐 쓴 <진달래꽃>에서는 영탄적인 표현을 추가한 곳이 드러나지 않는다.

06 ③ | ‘침윤’은 ‘사상이나 분위기 따위에 몰입하여 빠져듦.’이라는 뜻이다. ‘기분 따위가 가라앉음.’의 뜻을 지닌 말은 ‘침전’이다.

07 ③ | 내용 조직하기 단계는 자료를 배열하고 조직하여 개요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예상 독자에게 어울리는 주제인지, 알맞은 매체를 선정했는지 점검하는 것은 계획하기 단계의 점검 사항에 해당한다.

대단원 종합 문제

본문 31~35쪽

- | | | | | |
|------|------|------|----------|------|
| 01 ④ | 02 ④ | 03 ④ | 04 해설 참조 | 05 ⑤ |
| 06 ② | 07 ④ | 08 ④ | 09 ② | 10 ② |
| 12 ⑤ | 13 ⑤ | | | 11 ⑤ |

01 ④ | ‘쓰신다’에는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인 ‘-ㄴ-’이 쓰였으므로 현재 시제에 해당한다.

02 ④ | ④은 서술어의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드리려고’로 바꿔야 한다.

03 ④ | 미래에 어떤 일이 실현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 과거 시제로 표현한 것이지, 과거 사건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04 ‘제도’가 주어가 되고, 동사 ‘시행한다’가 피동사 ‘시행된다’로 바뀌는 피동 표현을 통해 동작의 주체인 ‘정부’를 숨기고, ‘제도’가 강조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 같은 상황을 표현하더라도 발화자의 의도에 따라 능동과 피동 표현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능동문에서 피동문으로 바꿔 사용할 때의 효과를 정리해 본다.

05 ⑤ | ‘덮여’는 ‘덮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어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어’는 피동 접미사가 아니라, 연결 어미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능동문으로 바꾸면 ‘경찰이 도둑을 잡다.’가 되므로 행위의 주체(주어)는 ‘경찰’이 된다.

② ‘잡다’의 피동 표현은 피동 접미사 ‘-하-’가 붙은 ‘잡히다’로 실현된다. 피동 접미사가 결합한 ‘잡히다’에 ‘-어지다’가 붙은 ‘잡히어지다’는 이중 피동, 즉 지나친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③ ‘풀다’의 어근 ‘풀-’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어 ‘풀리다’가 된 경우이다.

④ ‘가다’라는 동사는 피동 접미사가 붙어 피동 표현이 되기 어려우므로, ‘-게 되다’를 붙여 피동문을 만들 수 있다.

자료실

• 피동 표현의 제한

국어의 피동문은 피동 접미사 ‘-이-’, ‘-하-’, ‘-리-’, ‘-기-’가 결합하는 피동사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동사들은 피동사로 파생되지 못한다.

– 동사 ‘하다’를 비롯하여 접미사 ‘-하다’가 붙은 동사

– ‘주다’, ‘받다’, ‘드리다’, ‘버치다’와 같은 수여 동사

– ‘알다’, ‘배우다’, ‘바라다’, ‘느끼다’ 따위의 화자의 심리적 경험을 나타내는 동사

06 ② |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면 인용격 조사나 대명사 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순서대로 ‘오늘’, ‘오라고’, ‘자기가’, ‘보자고’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07 ④ | 유명 작가들의 퇴고에 대한 생각을 제시하면서 퇴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08 ④ | 이 글의 내용 중 잘못된 퇴고를 거친 작품을 예로 제시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글쓰기에서 퇴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② (마)에서 퇴고에 대한 유명 작가들의 생각을 언급하고 있다.

③ (나)에서 글쓴이가 겪은 퇴고에 관한 경험을 예로 들고 있다.

⑤ (다)와 (라)에서 김소월의 대표작인 〈진달래꽃〉의 퇴고 과정을 예로 들고 있다.

09 ② |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술’은 글의 내용은 부실한데 표현만 그럴듯하게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 얇은수로 날을 속이려 한다는 말인 ‘눈 가리고 아옹’이라는 속담이 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모기 보고 칼 빼기’는 시시한 일로 소란을 피움을 비유적으로 이르거나, 보잘것없는 작은 일에 어울리지 않게 엄청나게 큰 대책을 씀을 이르는 말이다.

③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아무 관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가랑비에 옷 젓는 줄 모른다’는 가늘게 내리는 비는 조금씩 젓어 들기 때문에 여간해서도 옷이 젓는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솔뚜껑 보고 놀란다’는 어떤 사물에 몹시 놀란 사람은 비슷한 사물만 보아도 겁을 냄을 이르는 말이다.

10 ② | 시어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참신한 표현으로 다듬어서 정리된 느낌을 주며 생동감이 느껴지게 되었다.

11 ⑤ | 글쓴이는 ‘밥 먹듯이 고치고, 그렇게 고치는 일을 즐겨라.’라고 하면서 오래, 여러 번 고치는 것이 진정한 퇴고임을 말하고 있다.

12 ⑤ | 글의 주제가 ‘재미있는 독도 이야기’이고, 강치의 멸종 이유 및 복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으므로, 독도의 소유권에 대해 정치적인 근거를 들어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3 ⑤ | (가)의 주제를 ‘독도 생태계의 특징’으로 바꿀 경우 독도에 살고 있는 동식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제시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서술형 종합 문제

본문 36쪽

01 예시 답안 객체 높임법이 나타나는 문장으로, 부사격 조사 ‘께’와 ‘드리다’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서술어의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출제 의도 높임 표현의 종류 중 객체 높임법을 파악하고, 객체 높임법의 실현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가)를 바탕으로 객체 높임법이 특수 어휘와 부사격 조사로 실현됨을 알고 문제에 접근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가)에 사용된 단어를 활용하여 객체 높임 표현과 실현 방법을 적절하게 설명한 경우	3
	(가)에 사용된 단어를 활용했으나 높임 표현의 종류나 실현 방법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 경우	2
형식과 표현	70자 내외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1

02 예시 답안 “이제 다 왔다!”와 “너 이제 혼났다!”는 미래에 벌어질 일을 나타내면서도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로 표현했는데, 이는 미래 상황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출제 의도 문장의 시간 표현은 담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문장 중 시제와 상황이 불일치하는 문장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와 같은 표현이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이유를 파악해 보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나)를 참고하여 시제와 상황이 불일치하는 표현임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한 경우	4
	시제와 상황이 불일치하는 표현이라는 것과 이러한 표현이 실제로 사용되는 이유 중 한 가지만 제대로 설명한 경우	2
형식과 표현	110자 내외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1

03 예시 답안 퇴고는 씨앗을 심고 돌보아서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이며, 옷감에 바느질을 하는 일이다.

출제 의도 (다)와 (라)에 나타난 ‘퇴고 과정’을 비유한 표현을 찾는 문제이다. 글쓴이가 퇴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어떤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는지 확인해 본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다)와 (라)에 드러난 비유적 표현 두 가지를 모두 언급한 경우	4
	둘 중 하나만 충족한 경우	2
형식과 표현	‘퇴고는 ~ 일이다.’의 형식으로 쓰지 않은 경우 50자 내외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각 -1

7단원 서로에게 한 걸음씩

(1) 알아듣기

시험문제 미리 보기

본문 43~45쪽

- 1 ② 2 ⑤ 3 해설 참조 4 ⑤ 5 ⑤
6 ④ 7 ②

- 1 ② | 이 글은 라디오 방송 형식으로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 대해 고민하는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 2 ⑤ | “들어가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들어갈까?”라며 돌려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 3 목이 마르니 음료수를 마시고 싶다. | 자신도 걸어왔는데 더웠다고 말한 뒤 기찬이에게 목이 마른지 묻는 것으로 보아, 마실 것을 좀 마시자고 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 4 ⑤ | 간접적인 말하기를 선호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말하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기는 어렵다.
- 5 ⑤ | 냉방기를 틀고 싶을 때 “냉방기를 틀자.”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 너무 더운 것 같지 않니?”라고 말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것이다.
- 6 ④ | 기찬이의 고민은 간접적인 말하기를 즐겨 하는 친구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기찬이에게는 말 속에 감추어진 의미를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7 ② |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은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본다는 의미인 ‘역지사지’와 어울린다.

오답 풀이 ①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이르는 말이다.

③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④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을 이르는 말이다.

⑤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산의 옥돌을 가는 데에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본이 되지 않은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학습활동 문제로 확인

본문 48쪽

- 1 ② 2 해설 참조 3 ④

1 ② | 그, 드이 어른 세대에서 나타나는 말하기 특징이며, 그, 그은 우리 세대에서 자주 드러나는 말하기 특징이다.

2 기찬이 친구는 하고 싶은 말을 돌려 말하는 간접적인 말하기를 사용하고 있다. | <보기>의 내용에서 기찬이 친구의 말하기 방법이 간접적인 말하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④ | 관계 중심 말하기에서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비중을 둔다. 따라서 정보나 의견과 같은 대화의 내용보다는 대화의 과정 자체를 중시한다.

내신 대비 문제

본문 49~52쪽

- 01 ⑤ 02 ③ 03 ⑤ 04 ④ 05 해설 참조
06 ③ 07 ⑤ 08 ④ 09 해설 참조 10 ⑤
주관식 ⑤ ⑤ 1 목표, 관계 2 우회, 간접 3 직접, 간접
4 회고, 유행어 5 다양, 이해

01 ⑤ | 기찬이 친구는 목마르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한 기찬이의 반응 때문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다. 사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찬이가 약속 시간을 지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02 ③ | “목마르지 않아?”라는 친구의 질문에 우유를 마셨다고만 대답하는 기찬이의 말을 통해 기찬이는 자신의 의도를 곧장 전달하는 직접적인 말하기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3 ⑤ | [A]에는 ‘타당하다’의 어근인 ‘타당’과 충을 쓰는 소리를 표현한 ‘타당’이 동음이의어인 것을 활용한 언어유희가 나타나 있다. ⑤에서도 ‘양빈’의 한자가 개잘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빈’ 자라고 하여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가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①, ③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유희이다.

②, ④ 말의 배치를 바꾸는 방법을 통한 언어유희이다.

04 ④ | 친구가 “목마르지 않아?”라고 물은 뒤 무슨 말을 하려다가 가만히 다음 말을 기다린 것으로 보아, 친구의 말에는 목이 마르니 음료수를 마시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기찬이는 그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우유를 마셨다고 잘라 말했으므로 친구는 서운함을 느꼈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⑤ 기찬이는 친구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했을 뿐, 친구에게 먼저 서운한 티를 내거나 무성의한 말을 하지는 않았다.

- ② 기찬이 친구가 기찬이의 농담이 재미가 없어서 서운함을 느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③ 영화가 재미있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만 영화에 대한 친구의 평가는 이 글에서 알 수 없다.
- 05** 나 목이 마른데 우리 뭐 좀 마실까? | 기찬이 친구의 말하기를 고려하여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면서도, 목이 마르니 마실 것을 마시고 싶다는 뜻을 드러내야 한다.
- 06** ③ | 이 글은 간접적인 말하기와 직접적인 말하기 방법을 대비하고 그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 07** ⑤ | “목마르지 않아?”는 ‘목이 마르니 음료수를 마시자.’라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돌려 말한 것이다. ⑥에서도 ‘창문을 단자.’라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08** ④ | 갑이 자신이 했던 일을 나열하며 의기양양해하는 모습에서 읊에게 수고했다는 칭찬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 09**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 (라)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아닐까요?’에서 알 수 있다.
- 10** ⑤ | 지역 방언이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내용은 이 글과 <보기>에서 모두 찾아볼 수 없다.

(2) 협상하기

시험 문제 미리 보기

- | | | | | |
|----------|------|---------|---------|-----|
| 1 ③ | 2 ④ | 3 해설 참조 | 4 ③ | 5 ⑤ |
| 6 해설 참조 | 7 ③ | 8 ③ | 9 해설 참조 | |
| 10 해설 참조 | 11 ⑤ | | | |

본문 54~57쪽

- 1** ③ | 무력이나 권력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뒤따라 더 큰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 2** ④ | ①은 한 어미에게서 난 자식도 모양이나 성격이 다르다는 뜻으로, 인간의 개성을 강조한 속담이다. 이와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 한자 성어는 여럿이 개별적 특성이 없이 모두 엇비슷

한 현상을 일컫는 ‘천편일률’이다.

- 오답 풀이** ①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에게 삶아 먹히게 된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아빅하게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②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리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③ 달면 삼키고 쓰면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이르는 말이다.
 ⑤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름을 나타내는 말이다.

- 3** 민주적, 효율적 | (다)에서 협상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이며, 불필요한 싸움으로 비용을 치르지 않고 모두 만족하는 결과와 함께 서로의 신뢰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 4** ③ | (마)에서 갈등의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을 해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
- 5** ⑤ |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조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 6** 하나의 대상을 양쪽이 모두 원해서 생기는 갈등 | (바)에서는 양쪽이 같은 대상을 원할 때 생기는 갈등과 그 해결 방안을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시나이반도 반환 협상’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 7** ③ | 이스라엘이 원한 것은 시나이반도의 소유권이 아니라 시나이반도가 완충 지대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 8** ③ | 양쪽 모두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휴가의 절반을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휴가 기간을 나누어 두 곳을 모두 가는 방안은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하였다.
- 9** 겉으로 드러난 주장이나 요구보다는 실제 관심사나 욕구가 무엇인지 주목하는 것 | 갈등 유형에 따라 해결 방안은 다르지만 해결하는 원리는 같으며, 그것은 갈등 당사자가 실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10** 모두가 승리할 수 있다는 협력적 태도, 역지사지의 태도 | ‘승리 아니면 패배라는 적대적 태도보다는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협력적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대방의 주장과 요구를 경청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태도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에서 알 수 있다.
- 11** ⑤ | ‘시나이반도 반환 협상’, ‘휴가지 결정 협상’과 같은 구체적 예시를 통해 협상의 원리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고 있다.

학습활동 문제로 확인

1 ② 2 ② 3 해설 참조

본문 59쪽

- 1 ② | 이스라엘의 주장은 타국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완충 지대가 필요하므로 시나이반도를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 2 ② | 협상안을 준비하는 것은 협상을 통해 상대측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갈등 해결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은 아니다.
- 3 두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벌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다는 점에서 민주적이다. | 갈등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끼리 협상을 하면 상대방과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이다.

내신 대비 문제

본문 60~62쪽

01 ④ 02 ① 03 해설 참조 04 ② 05 ④
06 ④ 07 ⑤ 08 ⑤

주관식 1 타협, 조정 2 시작, 조정, 해결 3 민주, 효율
4 적대, 협력 5 완충 지대, 비무장 지대

- 01 ④ |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협상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협상과 토의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폴이 ① (가)에서 협상의 의미를 정의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② (가)에서 협상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장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에서 갈등의 유형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⑤ (가)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힘에 의한 방법과 협상에 의한 방법 두 가지를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 02 ① | 무력이나 권력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더 큰 갈등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협상에 의한 방법이 불필요한 짜움으로 비용을 치르지 않고 만족하는 결과와 함께 서로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 03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시나이반도를 소유권과 사용권으로 나누어 봄으로써 양측이 만족하는 타협안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 (나)에서 하나의 대상인 시나이반도를 '소유권'과 '사용권'으로 나누어 이집트가 시나이반도의 '소유권'을 갖되 '사용

권'은 포기하는 것으로 협상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 04 ② | 이스라엘 측에서 시나이반도를 반환하는 안을 제시하고 상대측의 반응을 살피는 것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조정' 단계에 속한다.
- 05 ④ | 이 글은 '시나이반도 반환 협상'과 '휴가지 결정 협상'을 사례로 들어 협상의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06 ④ |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주장이나 요구보다는 실제 관심사나 욕구가 무엇인지 주목해야 한다.
- 07 ⑤ | (나)의 협상의 해결 방안은 둘의 욕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속초로 가는 것이었다. 두 장소를 모두 가는 것은 만족스러운 해결 방안이 되지 못했다.
- 08 ⑤ | ⑦~⑩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협상이다. ⑪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협상의 한 종류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외교 협상이다.

대단원 종합 문제

본문 63~67쪽

01 ④ 02 ④ 03 ③ 04 ① 05 ① 06 ②
07 ④ 08 ② 09 ③ 10 ③ 11 ④ 12 ③

13 해설 참조

- 01 ④ | (다)에서는 직접적인 말하기와 그것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의 성향에 대한 내용이 나타날 뿐, 대화 방법의 차이에 따른 갈등 양상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 02 ④ | 앞선 대화에서 기찬이 친구가 기찬이의 반응으로 인해 서운함을 가진 것은 맞지만, ⑩은 기찬이의 질문에 답한 것일 뿐 이므로 상대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03 ③ | (다)에서 ⑩와 같은 사람들이 실용적인 목적 없이 관계 유지를 위해 나누는 대화를 쓸데없는 잡담이라 여긴다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만, 이들이 돌려 말하기가 관계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을 유추하기는 어렵다.
- 04 ① | '한담객설'은 '심심풀이로 하는 군말'이라는 뜻으로 쓸데 없는 잡담을 의미하는 한자 성어이다.

오답 폴이 ②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 내세워 피는 말이다.
- ③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을 뜻하는 말이다.
- ④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 ⑤ 한 마디 말과 반 구절이라는 뜻으로, 아주 짧은 말을 이르는 말이다.
- 05** ① | 이 글은 협상의 절차와 올바른 협상 태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문이다.
- 오답 풀이** ②는 시사 평론, ③은 수필, ④는 소설, ⑥는 연설문에 대한 설명이다.
- 06** ② | 같은 대상을 원할 때와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일어나는 갈등을 분류하여 그 해결 방안을 설명하고 있으며(ㄱ), ‘시나이반도 반환 협상’과 ‘휴가지 결정 협상’을 예로 들어 협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ㄴ). 또한 갈등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방법의 공통적인 원리를 드러내고 있다(ㅁ).
- 07** ④ | 이스라엘에 이집트에 시나이반도를 돌려주되, 그곳을 비무장 지대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
- 08** ② | 휴가 기간을 나누어 두 곳을 모두 가자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조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 09** ③ | (나)에서는 사례를 통한 설명이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②(가)는 고민 사연을 보낸 기찬이에게 라디오 진행자가 조언을 해 주는 구어체 방식으로 서술되어 친근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나)에서는 ‘역지사지’라는 한자 성어를 활용하여 협상을 할 때 상대방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봄으로써 상대방의 입장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다)에서는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와 같이 비속어를 사용하여 학성을 보이는 부분이 나타난다.
- 10** ③ | (가)에서는 지역이나 세대에 따라 말하기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원활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 11** ④ | 상대방의 주장과 요구를 경청하는 태도가 나타난 것은 ④이다.
- 12** ③ | 점순이가 “느 집엔 이거 없지?”라고 말한 것은 ‘나’를 무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귀한 감자를 ‘나’에게 줌으로써 ‘나’에 대한 자신의 호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⑦은 대화를 하기 위해 먼저 화제를 제시한 것이므로 유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말에 해당한다.
- ② 점순이가 답을 기다리지 않고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는 것으로 보아 ⑦은 대답을 바라고 한 말이라기보다는 ‘나’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⑧은 봄 감자가 맛있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가 아니라 봄 감자를 먹으라는 뜻을 담은 간접적인 말하기이다.
- ⑤ ⑨은 점순이가 건넨 감자를 거부하려는 ‘나’가 자신의 거절 의사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 13** 말하기 방법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고, 대화할 때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 (가)의 내용에서 지역 감정을 극복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이끌어 낸다면,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의 말하기가 나타난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서술형 종합 문제

본문 68쪽

- 01 예시 답안** 을의 말에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갑은 을에게 격려나 칭찬 등의 말을 바랐을 것이기 때문에 “피곤했을 텐데 고생 많았어.” 등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출제 의도 바람직한 대화 태도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대화 상대방이 어떤 말하기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을이 갑의 마음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답할지 생각해 본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을의 말의 문제점과 갑의 의도를 설명하고 을의 말을 적절히 고쳐 서술한 경우	4
	을의 말의 문제점, 갑의 의도, 적절하게 고친 말 중 두 가지를 서술한 경우	2
형식과 표현	110자 내외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1

- 02 예시 답안** 우리 세대는 ‘대박’, ‘쩔지?’, ‘헐’과 같은 유행어를 써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어른 세대는 ‘내가 너만 했을 때는’과 같이 과거를 회상하는 회고적 말하기를 즐겨 하는 경향이 있다.

출제 의도 대화에 나타난 세대 간 말하기 방법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우리 세대와 어른 세대의 말하기 방법을 적절히 설명한 경우	4
	우리 세대와 어른 세대의 말하기 방법 중 한 가지만 설명한 경우	2
형식과 표현	110자 내외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1

03 예시 답안 가게 주인의 실제 관심사는 체육복 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복 가격을 깎아 주면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여 가게의 이익을 높일 수 있다는 협상안을 제시한다.

출제 의도 협상안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여 협상안을 구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가게 주인의 실제 관심사를 포함한 적절한 협상안을 제시한 경우	4
	협상안은 제시했으나 가게 주인의 실제 관심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2
형식과 표현	100자 내외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1

8단원 문학과 삶**(1) 이별, 그 영원한 주제****시험 문제 미리 보기**

본문 76~77쪽

1 ② 2 ④ 3 ④ 4 ③

1 ② | 자신을 떠나려는 임을 붙잡고 싶어 하지만 임이 돌아오지 않을까 봐 마지못해 보내고 있으므로 이별을 거부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 ④ | ⑦은 태평성대를 소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 ④ | 자식의 죽음으로 인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나지만, 반어적 표현이 사용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죽은 아이'를 별, 산새 등에 비유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 ② 화자가 유리창을 닦으며 죽은 아이를 그리워하는 시적 상황을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 ③ '유리창'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 죽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마지막 행의 감탄사 '아아'를 통해 화자의 비애감을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 ③ | '새까만 밤'은 죽음의 세계를 의미한다. 나머지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죽은 아이'를 형상화한 시어로 볼 수 있다.

학습 활동 문제로 확인

본문 79쪽

1 ③ 2 해설 참조 3 ①

1 ③ | '기'에서는 화자가 임에게 자신을 떠날 거냐고 물으며 이별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승'에서는 임에게 하소연을 하며 한탄하고 있다. '전'에서는 임을 붙잡고 싶지만 임이 돌아오지 않을까 봐 보낸다며 체념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결'에서는 자신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말하며 재회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2 화자는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지만, 유리창을 통해 죽은 아이를 잠시나마 느낄 수 있어 황홀함을 느끼고 있다. '외로움'과 '황홀함'이라는 서로 모순되는 감정을 역설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유리창>에서는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죽은 아이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 3 ① | <가시리>는 임과의 이별로 인한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고, <유리창>은 죽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두 작품 모두 대상과의 이별을 제재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신 대비 문제

본문 80~82쪽

01 ④ 02 ③ 03 ③ 04 해설 참조 05 ④

06 ② 07 ⑤ 08 ①

주관식 1 고려 속요 2 정한 3 3음보, 분절체
4 언 날개 5 외로운 황홀한 6 산새

- 01 ④ | (가)의 화자는 사랑하는 임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 안타까움과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의 공통점은 화자에게 소중한 대상이 결핍된 상황을 시적 모티프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02 ③ | ‘전’에서 화자는 떠나는 임을 붙잡고 싶어 하지만, 임이 행여 서운해하여 다시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③과 같이 임이 떠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승’에서 이별에 대한 슬픔과 원망의 심정으로 좌절하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② ‘기’에서 떠나는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과 서러움이 직설적으로 드러나 있다.
④ ‘결’에서 임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다.
⑤ ‘기, 승’에서 화자는 임이 떠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다.

- 03 ③ | (가)에는 각 연마다 후렴구가 배치되어 있지만, 이는 악률을 맞추기 위한 구절일 뿐 주제 의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고려 속요는 남녀 간의 사랑이나 생활 감정과 같은 평민

들의 정서를 주로 노래하고 있는데, (가)에서도 임과의 이별이라는 정서가 드러난다.

② (가)를 ‘가시리▼가시리▼잇고’와 같은 3음보의 율격으로 읽을 수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의 후렴구에 나타난 ‘대평성대(太平聖代)’는 고려 속요가 궁중으로 수용되면서 덧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가)의 ‘나는’은 아무 의미 없이 악률을 맞추기 위한 구절이다.

- 04 (가)의 화자는 이별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보기>의 화자는 자신을 떠나려는 임에 대한 원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 (가)와 <보기>는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면서도 이별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의 ‘잡스와 두어리마느는 / 선호면 아니 올세라’에서는 이별의 수용과 체념, <보기>의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에서는 강한 원망이 드러나고 있다.

- 05 ④ | ‘언 날개를 파닥거’리는 것은 입김의 모양이 변하며 만들어 낸 모습으로, 죽은 아이의 모습을 의미한다. 따라서 ④에서 화자가 창밖의 새를 보면 아이의 모습을 떠올린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6 ② | (나)는 죽은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혈육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감할 것이다.

- 07 ⑤ |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는 표현을 통해 서로 모순된 감정인 ‘외로움’과 ‘황홀함’을 나란히 보여 줌으로써 아이의 죽음으로 인한 안타까움과 슬픈 감정을 절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08 ① | (나)의 화자는 죽은 아이가 산새처럼 날아가 버렸다면 더 이상 아이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보기>의 화자도 죽은 아내와 자신의 거리가 ‘하늘과 땅의 거리’라고 생각하며 아내를 이승에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보기>에서는 아내에게 생전에 옷 한 벌 못 해 준 것을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시적 대상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후회를 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보기>에서는 견우와 직녀 설화를 차용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설화를 차용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④ <보기>에서는 사별한 아내와의 재회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고 있으나, (나)에서는 재회를 확신하는 화자의 믿음을 확인할 수 없다.

⑤ 시적 대상의 부재에도 삶에 대한 의지를 표출하는 것은 <보기>에만 해당한다.

자료실**• 도종환,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 주제: 아내와 사별한 슬픔과 그 극복 의지

- 성격: 애상적, 의지적, 희고적

- 해제: 생전에 아내에게 잘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사별로 인한 슬픔, 재회에 대한 믿음을 담담한 어조로 노래한 시이다. 슬픈 감정이 북받쳐 오를 상황에서 감정을 절제하고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화자의 모습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고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화자는 노국이 좁은 줄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하였다.

③ 화자는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가지 못한 채 내려가고 있으며, 사람을 만나고 있지도 않다.

④ 화자는 공자의 높은 정신적 경지에 이를 수 없으니 그냥 내려가는 것 이 이상하지 않다고 하였다.

⑤ 동산, 태산과 비로봉의 높이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8 천년 노룡이 풍운을 얻어 삼일우를 내리게 하여 벼랑에 시든 풀을 다 살리듯, 화자도 선정을 베풀어 굶주린 백성을 다 살려내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 작가는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면서도 관찰사로서의 책임감을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다. 특히 화룡소의 모습을 통해 작가가 드러내고자 했던 선정에 대한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9 ⑤ | (사)에서는 화자가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를 넘어 불정대에서 바라본 십이 폭포를 묘사하고 있으므로, 공간의 이동 과정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시적 대상인 '십이 폭포'의 시간에 따른 변화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10 ③ | 화자는 십이 폭포의 장관에 감탄하며 이 적선과 다시 의 논하더라도 중국 여산이 십이 폭포보다 낫다는 말을 못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11 ⑤ | 말하고자 하는 바와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7·5조, 3음보의 규칙적인 율격으로 작품의 음악성을 높이고 있다.

②, ③ 기차의 속도를 빨리 부는 바람의 형세에 비유하고,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다.

④ 2연의 1행과 2행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기차 안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12 1연은 빠르게 달리는 기차의 모습을, 2연은 기차 안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1연의 '빨리 부는 바람의 형세 같으니', 2연의 '조그마한 딴 세상 절로 이뤘네'에서 각각의 연마다 묘사하고 있는 시적 상황 및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2) 자연과 문명**시험 문제 미리 보기**

본문 85~90쪽

- | | | | |
|----------|---------------------|-----------|------|
| 1 ④ | 1 무지개, 용의 초리, 우레, 눈 | 3 서호 넷 주인 | |
| 4 ④ | 5 해설 참조 | 6 ③ | 7 ① |
| 8 해설 참조 | 9 ⑤ | 10 ③ | 11 ⑤ |
| 12 해설 참조 | | | |

- 1 ④ | '은 그튼 무지개 옥 그튼 용의 초리'와 같이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으며, 비유적 표현을 통해 폭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2 무지개, 용의 초리, 우레, 눈 | 폭포의 모습을 '무지개', '용의 초리', '눈'에, 폭포의 소리를 '우레'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 3 서호 넷 주인 | 화자는 자기 자신을 '서호 옛 주인'에 비유하여 공중에 솟은 학이 자신을 반겨서 넘는다고 노래하고 있다.
- 4 ④ | 화자는 '망고대'와 '헬망봉'을 보며 충신의 절개를 떠올리고 있으므로, '헬망봉'의 모습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5 '망고대'와 '헬망봉'에 빗대어 변하지 않는 충신의 곧은 절개를 노래하고 있다. | '눕흘시고 망고대(望高臺) 외로울샤 혼망봉(穴望峰이)', '천만겁(千萬劫) 디나도록 구필 줄 모루는다'에서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표현하고 있다.
- 6 ③ | 화자가 금강산의 맑고 깨끗한 정기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에서 우국충정이라는 유교적 가치관이 드러난다.
- 7 ① | 화자는 동산과 태산에 올라 천하를 좁다고 한 공자의 높은 정신적 경지에 감탄하면서, 자신은 그 경지에 이를 수 없다

학습 활동**문제로 확인**

본문 92쪽

- | | | |
|-----|-----|---------|
| 1 ④ | 2 ② | 3 해설 참조 |
|-----|-----|---------|

- ④ | 화자는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망고대’와 ‘혈망봉’을 보며, 충신의 절개를 떠올리고 ‘망고대’와 ‘혈망봉’을 예찬하고 있다.
- ② | ②에서는 만폭동 폭포를 대구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묘사함으로써 경쾌한 리듬을 형성하며 역동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느낌을 주고 있다.
- 늙은이와 젊은이 사이에 상하의 질서를 강조하던 조선 시대와 달리 ‘조그마한 딴 세상’은 늙은이와 젊은이, 모두가 평등하고 거리감이 없는 세상을 의미한다. | 근대 문명을 도입하던 시기에 창작된 〈경부 철도 노래〉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바탕으로 ‘조그마한 딴 세상’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내신 대비 문제

본문 93~96쪽

- 01 ③ 02 ⑤ 03 ② 04 ② 05 ④ 06 ③
07 ⑤ 08 해설 참조

주관식 ① 1 서호 넷 주인 2 혈망봉 3 면양정가
4 천년 노룡, 풍운, 삼일우, 음애예 이온 플 5 창가
6 조그마한 딴 세상

- ③ | 금강산의 다양한 경관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대상(금강산)과의 갈등 상황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 기행 가사이다.

- 대구를 사용하여 만폭동 폭포와 금강산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금강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 중국 고사 속의 ‘여산’과 비교하면서 금강산 경치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다.

- 화자는 진혈대 위에서 바라본 망고대와 혈망봉을 통해 임금을 향한 충신의 절개를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임금의 절개보다 금강산 경치를 즐기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 ①에서 ‘서호 넷 주인’은 화자 자신을 가리킨다. 공중에 솟은 학이 화자 자신을 반기는 듯하다고 한 것에서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 (가)에서는 개심대에서 바라본 금강산 일만 이천 봉의 맑고 깨끗한 기운을 노래한 다음, 이러한 모습들이 조물주의 깊은 뜻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감탄하고 있다. (라)에서는 빠르게 출발하는 기차의 모습을 드러낸 다음, 바람의 형세와 같고 새보다 더 빠를 것 같다고 감탄하고 있다.

- ④ | 〈보기〉의 화자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면서도 현실 속의 문제에 대해 제세현(세상을 구할 현인)이 나타날 것이다 말하고 있다. 반면 (다)의 화자는 선정을 통해 굶주린 백성을 들을 다 살려 내고 싶다고 자신의 포부를 밝히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는 속세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지 않으며, 〈보기〉에서도 속세보다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다.
② 〈보기〉의 화자는 배에 누워 있어도 현실에 대한 걱정을 잊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다. (다)의 화자도 선정에 대한 포부를 다짐하고 있으므로, 현실 속의 시름을 잊은 채 자연을 즐기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다)의 화자는 자연과 인간 세계를 대조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⑤ 화자의 여정에 따른 장소의 이동 과정이 나타나 있는 것은 〈보기〉가 아니라 (다)이다.

자료실

• 이현보, 〈어부사〉

- 주제: 자연에 은거하는 어부의 생활
- 성격: 풍류적, 낭만적, 자연 친화적
- 해제: 생업을 떠나 자연을 벗하며 고기잡이하는 풍류객으로서의 어부 생활을 그린 작품으로, 강호가도의 맥을 잇는 동시에 윤선도의 〈어부사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 ③ | ⑦에는 금강산의 맑은 정기로 인재를 만들어 내고 싶다는 우국충정이 드러나 있고, ⑧에는 굶주린 백성을 다 살려 내고 싶다는 선정에 대한 포부가 드러나 있다. 따라서 ⑦과 ⑧을 통해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과 관리로서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

- ⑤ | 화자는 근대 문명의 도입을 상징하는 기차의 ‘기적 소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한편, 늙은이와 젊은이,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진 ‘조그마한 딴 세상’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라)와 같은 창가는 가사의 4·4조, 4음보의 정형률에서는 벗어났지만 7·5조, 3음보의 율격을 취함으로써 정형적인 율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 창가는 개화 가사와 신체

시의 과도기적 역할을 담당했던 갈래로, 7·5조, 3음보의 율격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창가의 형식상 특징을 바탕으로 그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3) 현실과 세상살이

시험문제 미리 보기

본문 98~108쪽

- | | | | | |
|---------|---------------|---------|------|----------|
| 1 ③ | 2 산타클로스 비슷한 꼴 | 3 ② | 4 ④ | |
| 5 ⑤ | 6 ① | 7 해설 참조 | 8 ③ | 9 ① |
| 10 ① | 11 해설 참조 | 12 ③ | 13 ④ | |
| 14 출담배질 | 15 ① | 16 ④ | 17 ② | 18 ⑤ |
| 19 ④ | 20 ② | 21 ⑤ | 22 ③ | 23 해설 참조 |

1 ③ | 이 소설에서 외화 속에 내화를 삽입하는 액자식 구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산타클로스 비슷한 꼴 | ‘산타클로스 비슷한 꼴’은 ‘쌀이나 연탄 따위를 슬그머니 문간방 부엌에다 넣어 주고 온 날 저녁이면’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권 씨 가족을 도와주는 ‘나’와 아내의 행동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3 ② | ‘나’의 아내는 권 씨의 아내나 아이들을 위해서는 선심을 베풀 수 있지만, 권 씨에게까지 선심이 미치는 것은 꺼려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순경은 ‘나’가 산타클로스처럼 권 씨를 도와주도록 기대하였다.

③ ‘나’와 아내는 권 씨 가족의 상황이 최악의 선까지 가게 되면 마지못해 가끔씩 권 씨 가족에게 쌀과 연탄 따위를 도와주었다.

④ 끼니때가 되어도 권 씨네 아이들이 문간방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볼 때, 권 씨 가족이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⑤ ‘나’의 아내는 권 씨가 여간내기가 아니라고 속삭이던 것을 잊고, 권 씨 가족에게 셋방을 내준 것에 대해 자탄하고 있다.

4 ④ | 아내를 병원으로 옮기라는 ‘나’의 제안에 대해 권 씨는 둘째를 출산할 때에도 아내 혼자 출산을 했다며 ‘나’의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다.

5 ⑤ | 권 씨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까지는 아직 출산이 끝나지 않았다. 권 씨는 ‘나’에게 아내의 수술비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하러 온 것이다.

6 ① | 통행금지는 한밤중에 일반인들의 통행을 금지하는 제도로, 1982년도에 폐지되었다. 따라서 ‘통금’이라는 단어를 통해 시대적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7 ‘나’에게 어려운 부탁을 해야 하는데 쉽게 말을 꺼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 “뒤늦게나마 오 선생 말씀대로 했기 망정이지 ~ 여ing 애를 맥이는군요.”라는 말을 고려할 때, 수줍게 웃으며 발부리로 자꾸만 뭔가를 그리는 권 씨의 행동은 어려운 부탁을 해야 할 상황 때문임을 알 수 있다.

8 ③ | (라)에서 ‘나’는 상투적인 말로 자신의 감정을 권 씨에게 전달하기에는 권 씨가 부탁한 금액이 너무나 큰 부담이라고 하였다.

9 ① | 권 씨는 ‘나’에게 아내의 수술비를 빌리려 온 매우 급한 상황에서 ⑥~⑧와 같은 도발적인 표정과 사나운 기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④와 같은 수줍은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비굴해 보이지 않기 위해 당당한 태도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10 ① | 권 씨가 구두의 광택을 위해 바짓가랑이 뒤로 구두를 문지르는 것은 권 씨 스스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11 현재는 가난하고 힘들게 살지만, 자존심만은 잊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 권 씨는 대학을 나온 지식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그가 ‘나’에게 아내의 수술비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어렵게 꺼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②과 같이 말한 것이다.

12 ③ | 전셋돈도 일종의 빚이라는 생각과 함께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권 씨에게 돈을 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13 ④ | 출산이 끝난 후 원장 부인이 축하를 보내자, ‘나’도 보호자 입장에서 수고를 치하하고 있으므로 ‘나’가 병원장 부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4 줄담배질 |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서 우리 집 동준이 놈을 얻을 때처럼 줄담배질로 네 댄가 다섯 대째 불을 붙이고 나니까 울음소리가 들렸다.’를 통해 권 씨 아내의 출산을 기다리는 ‘나’의 심정을 확인할 수 있다.

15 ① | 강도는 ‘나’의 벽에 칼을 겨누고 있지만, ‘나’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있다.

16 ④ | ④에서는 서술자인 ‘나’가 권 씨를 모자라는 강도라고 말하며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17 ② | ‘나’가 돌려준 칼을 받아들고 다시 ‘나’의 벽을 겨누기는 했지만,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18 ⑤ | 권 씨는 아내가 급한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수술비가 없어 강도 짓을 하게 된 것이다.

19 ④ | ‘나’는 자신의 의도와 달리 자신의 방법이 강도, 즉 권 씨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사실을, 권 씨가 대청마루를 지나갈 때부터 인식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권 씨는 집에서 나가면서까지 자신이 대학 나온 사람이 리는 점을 강조하며 자존심을 지키려 하였다.
② 권 씨는 자연스레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대문의 위치를 알려 주는 ‘나’의 말을 듣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③ 권 씨는 ‘나’가 권 씨 아내의 수술비를 대납해 준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강도 짓을 하러 왔다.
⑤ 권 씨는 ‘나’에게 아내의 수술비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거절 당한 후, 자신의 어려움을 도와줄 이웃은 없다고 믿고 있다.

20 ② | 집을 나간 권 씨가 아무렇지 않게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 오기를 바라는 ‘나’의 배려가 담긴 행동이다.

21 ⑤ | ⑤에는 권 씨가 느낀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보려 한 권 씨가 그마저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22 ③ | 잘 닦인 일곱 구두 중에 한 켤레가 비어 있는 것을 본 ‘나’는 권 씨가 쉽사리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23 권 씨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집을 나가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문간방에서 ‘나’가 본 구두는 정갈하게 닦인 여섯 켤레와 먼지를 덮어 쓴 세 켤레, 즉 아홉 켤레가 남아 있었다. 사라진 한 켤레는 권 씨의 가출을 의미하며, 권 씨의 상처 입은 자존심을 상징하고 있다.

학습 활동 문제로 확인

본문 111쪽

1 ⑤ 2 ④ 3 해설 참조

1 ⑤ | ‘나’는 권 씨의 상황을 염려하면서도, 자신의 안정적인 삶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권 씨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④ | 권 씨는 가난하고 궁핍한 현실에서 오는 자괴감에서 벗어나 자존심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3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집을 나가 행방불명이 된 권 씨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상징한다. | 권 씨가 ‘나’에게 자신이 강도라는 것을 들키고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 집을 나가 버린 결말의 내용을 통해 제목의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내신 대비 문제

본문 112~115쪽

01 ⑤ 02 ② 03 해설 참조 04 ③ 05 ④
06 ③ 07 ③

주관식 1 구두 2대학 나온 사람 3 수술비
4 전셋돈 5 이중적 6 자존심

01 ⑤ | ‘나’가 권 씨에게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키라고 말하며 ‘우리를 위해서’라고 한 것은 공동체적 유대감을 회복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권 씨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권 씨 문제에 대해 깊게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소시민적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권 씨 아내가 경제적 형편 때문에 집에서 혼자 출산하려고 한 것은 1970년대 소외된 계층의 비참한 삶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②, ③ ‘나’가 권 씨 상황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소시민의 내적 갈등을 보여 주면서, 공동체적 유대감이 파괴된 현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④ 권 씨가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끼니조차 감당 못할 정도로 궁핍하게 사는 것은 1970년대 도시 빈민의 비참한 생활을 보여 주는 것이다.

02 ② | 아내를 병원으로 옮기자는 ‘나’의 제안에 권 씨는 둘째 아들도 아내 혼자서 출산을 했다는 말로 우회적으로 거절하고 있다. 또한 ‘나’는 권 씨가 정도 이상으로 능글맞다고 느끼고 있으므로, ‘나’의 제안을 권 씨가 야멸차게 거절하고 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03 수술비를 빌려 달라는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한 후에 ‘나’가 느낀 양심의 가책을 의미한다. | ‘나’는 권 씨에게 전에는 분만비를 빌려줄 수도 있다는 듯이 이야기했다가, 막상 권 씨가 돈을 빌리려 오자 돌려받을 어려움을 생각하며 거절한 것에 대해 ‘이건 완전히 나체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

04 ③ | 이 소설은 작중 등장인물인 ‘나’의 시각에서 권 씨를 관찰하여 서술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소설에서는 빈번한 장면 전환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를 통해 극적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지도 않다.

② 강도가 방에서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건이 모두 해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나, 서술자가 달라지고 있지는 않다.

⑤ 이 소설은 과거형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05 ④ | ‘나’가 강도의 집안 사정에 대해 아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때 전등을 켜지 않아도 ‘나’는 그 이전부터 강도가 권 씨라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06 ③ | ‘나’는 벽에 거둔 식칼이 텔덜털 위아래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강도가 무척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두려움 없이 강도를 대하고 있다. 오히려 강도가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

07 ③ | 강도에게 이웃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한 이유는 권 씨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지, 위험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한 것은 아니다.

01 ⑤ | (가)에서는 임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자신이 소망하는 상황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이와 달리 (나)에서는 죽은 아이를 ‘산새’에 비유하여 죽은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지만 화자가 소망하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③ | (나)의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라는 시구는 죽은 아이로 인한 슬픈 감정을 차운 이미지와 나란히 보여줌으로써 감정을 절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03 ‘유리’는 죽은 아이의 영상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죽은 아이와 화자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소통과 단절의 매개체라 할 수 있다. | (나)에서 화자는 유리를 통해 ‘차고 슬픈 것’과 같은 죽은 아이의 영상을 보면서, 죽은 아이와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

04 ③ | ‘잡스와’는 ‘불잡아’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05 ⑤ | (나)의 화자는 밤에 홀로 유리창을 닦으며 죽은 아이를 떠올리면서 ‘외로운 황홀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 ‘외로운’ 감정을 느끼지만, 죽은 아이를 유리창을 통해서 느낄 수 있으므로 ‘황홀한’ 감정도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유리창을 닦으며 잠시나마 아이의 죽음을 잊고 현실에 충실히 수 있어 황홀함이 들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의 화자는 임에게 자신을 떠날 거냐고 반복해서 묻고 있다.

② (가)의 화자는 임을 불잡으면 임이 서운하게 느껴 돌아오지 않을까 봐 임을 보내고 있다.

③ (나)에서 화자의 아이는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였다.

④ (나)의 화자는 밤에 홀로 유리를 닦으면서 죽은 아이를 잠시나마 느껴 보고 있다.

06 ④ | 〈관동별곡〉은 3(4)·4조, 4음보의 율격으로 노래한 가사에 해당하고, 〈경부 철도 노래〉는 7·5조, 3음보의 율격으로 노래한 창가에 해당한다.

07 ② | ①은 이제야 금강산 봉우리를 보게 되어 뜻이 깊다는 의미가 아니라, 금강산 봉우리의 장관을 보고 조물주의 깊은 뜻이었다며 감탄하고 있는 것이다.

08 ③ | (나)에서 화자는 ‘망고대’와 ‘혈망봉’을 바라보며 충신의 절개를 연상하고 있으며, (다)에서는 산의 정기를 닮은 인재를 양성하고 싶은 우국충정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마)에서는 화자를 ‘천년 노룡’에 비유하며 굽주린 백성을 다 살려 내

대단원 종합 문제

본문 116~121쪽

01 ⑤ 02 ③ 03 해설 참조 04 ③ 05 ⑤

06 ④ 07 ② 08 ③ 09 ④ 10 ④ 11 ④

12 ① 13 ④

고 싶다는 선정에 대한 포부를 노래하고 있다.

도답 풀이 (가) 금강대 꼭대기의 선학을 보며 풍류를 드러내는 부분으로, 사대부로서의 책임감이나 유교적 가치관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 화자가 비로봉 꼭대기에 오르지 못하고, 공자의 높은 정신적 경지에 이르지 못해 그냥 내려가려 하는 내용으로, 사대부로서의 책임감이나 유교적 가치관은 나타나지 않는다.

(바) 불정대에서 바라본 삼이 폭포의 장관에 감탄하는 부분으로, 사대부로서의 책임감이나 유교적 가치관은 나타나지 않는다.

09 ④ | ①의 비로봉 꼭대기에서 온 세상이 다 보이는 듯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화자는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 보지 못하고, 공자의 높은 정신적 경지에 이르지도 못하여 그냥 내려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

10 ④ |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로, 1인칭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인 권 씨의 삶을 관찰하고 있다.

11 ④ | '나'가 권 씨에게 대문의 위치를 알려 준 것은 권 씨의 잘 못된 점을 냉정하게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권 씨가 다음 날 아무렇지 않게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나'에 대해 잘못된 점을 정확히 지적하는 냉정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2 ① | 권 씨가 문간방으로 들어가면 권 씨가 강도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므로, '나'는 권 씨에게 대문의 위치를 알려 줌으로써 권 씨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한 것이다(ㄱ). 권 씨에게 권 씨를 도와줄 이웃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은 강도 짓을 하러 들어온 권 씨가 편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ㄴ).

13 ④ | '나'는 권 씨 아내의 병원비를 대신 지불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권 씨에게 권 씨를 도와줄 착한 이웃이 있을 거라고 말하였지만, '나'의 병원비 대납 사실을 모르는 권 씨는 '나'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권 씨의 반응으로 인해 '나'가 서운함을 느끼는 부분은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도답 풀이 ① '나'는 십만 원을 빌려 달라는 권 씨의 부탁을 듣고, 자신의 상황에 비해 너무나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였다.

② '나'는 권 씨의 경제적 상황을 생각하며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을 하였다.

③ '나'는 돈을 빌려 달라는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한 후,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전셋돈을 떠올리고 있다.

⑤ '나'는 권 씨를 배려하기 위해 권 씨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했던 것이었다.

서술형 종합 문제

본문 122쪽

01 예시 답안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본래의 애상적 분위기와 무관하게 태평성대의 즐거움을 노래한 내용이 첨가되었기 때문이다.

출제 의도 고려 속요의 주요한 형식상 특징을 이해하고, 후렴구의 특징을 갈래상 특징과 연관하여 이해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고려 속요의 수용 과정을 설명하면서 후렴구가 들어간 이유를 올바르게 설명한 경우	3
	후렴구가 들어간 이유를 올바르게 설명했지만, 고려 속요의 특징과 연관시키지 못한 경우	1
형식과 표현	70자内外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1

02 예시 답안 (나)의 화자는 ⑦을 도덕적 가치를 지닌 자연물로 여기며 예찬하고 있지만, <보기>의 화자는 ⑧를 임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기며 극복하려 하고 있다.

출제 의도 화자가 자연물을 대하는 태도를 고려하여 여러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하도록 한 문제이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나)와 <보기>의 화자가 자연물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하여 정확하게 설명한 경우	4
	(나)와 <보기>의 화자가 자연물을 대하는 태도 중 한 가지만 설명한 경우	2
형식과 표현	90자内外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1

03 예시 답안 궁핍한 상황에서도 권 씨는 구두를 반짝이게 닦고 있는 것을 볼 때, 구두는 권 씨의 자존심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두의 광택이 예전처럼 빛나고 있다면 권 씨의 자존심이 살아 있다는 의미이기에 그가 아무 일 없이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제 의도 '아홉 결례의 구두로 남은 사내'의 주요한 소재인 권 씨의 '구두'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고, 구두를 바라보는 '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구두의 상징적 의미와 ⑥과 같이 생각한 이유를 연결하여 설명한 경우	5
	구두의 상징적 의미를 설명했지만, ⑥과 같이 생각한 이유에 대한 연결이 부족한 경우	3
형식과 표현	150자内外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1

9단원 소통과 참여

(1) 글로 생각 나누기

시험 문제 미리 보기

본문 129~132쪽

- 1 ② 2 ② 3 ⑤ 4 ⑤ 5 국화, 매화
6 ③ 7 전성기 8 소년등과 9 ③ 10 해설 참조

- 1 ② | 수필은 형식이나 제약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갈래에 비해 자유로운 형식의 문학이다.
- 2 ② | (가)에서 ‘대리석과 유리로 외피를 두른 멋진 건물도 주지 못하는 매력이 자연에는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대학교의 멋진 건물로 인한 매력 때문에 교정이 아름답다고 말을 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3 ⑤ | (나)에서 ‘진달래’는 개강하고 신입생들이 들어올 때 볼 수 있는 꽃이라고 하였고, (다)에서 ‘중간고사 즈음엔 단연 벚꽃이다.’라고 하였다.
- 4 ⑤ | (마)에서 ‘가장 훌륭한 꽃은 없다. 저마다 훌륭하다.’라고 했으므로, 글쓴이가 모든 꽃은 피는 시기와 무관하게 저마다의 가치가 있음을 알려 주기 위해 질문했음을 알 수 있다.
- 5 국화, 매화 | (바)에서 “청춘들은 대부분 가장 일찍 꽃을 피우는 ‘매화’가 되려고만 한다.”, ‘늦가을 아름다운 고운 빛을 선사하는 국화는 되려 하지 않고, 다른 꽃들은 움도 퇴우지 못한 초봄에 향기를 뿐내는 매화가 되려고만 한다.’라고 하였다.
- 6 ③ | (사)에서 글쓴이는 ‘왜 그대들은 하나같이 초봄에 피어나지 못해 안달인가?’라고 하여 일찍 성공하는 것만이 가치 있는 삶은 아님을 말하고 있다.
- 7 전성기 | (아)에서 ‘그대라는 꽃이 피는 계절은 따로 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대,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이다. 다소 늦더라도, 그대의 계절이 오면 여느 꽃 못지 않은 화려한 기개를 뽐내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꽃이 피는 계절이 따로 있듯이 사람도 화려한 기개를 펼칠 자신만의 때가 올 것이므로 ‘그대의 계절’은 자신의 전성기를 의미하고, 이것을 준비해야 함을 의미한다.
- 8 소년등과 | (자)에서 “‘소년등과(少年登科)’라는 말이 있다.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

다.”라고 하였다.

- 9 ③ | ‘소년등과 부득호사’는 소년등과한 사람치고 좋게 죽은 사람이 없다는 말로, 이른 출세가 불행의 근원이 된다는 의미이다.

오답 풀이 ① (차)에서 ‘너무 일찍 출세하면 나타해지고 오만해지기 쉽다.’라고 하였다.

② (자)에서 ‘오히려 옛사람들은 인간의 세 가지 불행 중 첫 번째로 소년 등과를 꼽았다.’라고 하였다.

④ (차)에서 ‘너무 일찍 출세하면 나타해지고 오만해지기 쉽다. 나타하므로 더 이상의 발전이 없고, 오만하므로 적이 많아진다. 그러니 더 이상 성공하기 어렵고 ~’라고 하였다.

⑤ (자)에서 ‘일찍 출세했으니 소년등과한 사람을 다들 부러워했을 것이고 높이 받들었을 것 같다. /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 10 일찍 성공하지 못한 것에 좌절하지 말고 자신의 전성기를 대비하라. | (카)에서 ‘많은 청춘들이 소년등과를 부러워하고, 잠정적인 실패에 좌절하며, 잠깐의 뒤틀림에 열등감을 느낀다. 그러지 말라. 그대의 전성기는 아직 멀리 있다.’라고 하였다. ‘소년등과’는 일찍 성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찍 성공하지 못한 것에 좌절하지 말고 장차 다가올 자신의 전성기를 대비하라는 내용이 적절하다.

학습 활동 문제로 확인

본문 135쪽

- 1 ⑤ 2 ④ 3 ④ 4 도적놈

- 1 ⑤ | 글쓴이는 일찍 성공하지 못해 좌절하는 독자들에게 저마다 전성기가 다르며 자신의 전성기를 대비해야 한다고 격려하고 있다.

- 2 ④ | 그과 같은 이 글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으므로 글쓴이에게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 3 ④ | 첫 번째 양반 매매 중서에서 양반도 관가에서 재판을 한다고 하였으므로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4 도적놈 | 양반들을 ‘도적놈’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부패한 양반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풍자가 드러나고 있다. 이는 양반 계층이 무위도식하며 공허한 관념과 겉치레에 얹매인 비생산적인

계층이며, 개인적 이익만을 취하고 부당한 특권을 남용하는 집단임을 부자의 입을 통해 비판한 것이다.

내신 대비 문제

본문 136~139쪽

01 ② 02 ③ 03 ③ 04 ② 05 ⑤

06 해설 참조 07 ③ 08 ②

주관식 1 능동적, 상호 작용 2 수필, 경험, 가치관 3 제각각
4 매화 5 소년등과, 나태, 오만 6 일찍, 크게

01 ② | 이 글은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한 수필이므로, 글쓴이의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 생각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자신과 비교하여 읽는 것이 적절하다.

02 ③ | (가)~(마)에는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대상인 꽃을 비판하고 있지도 않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가 생활하는 대학 교정에 피는 꽃을 관찰한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

② 입학식 즈음에는 매화와 개나리, 진달래, 목련을, 중간고사 즈음에는 벚꽃, 5월에는 장미와 카네이션, 여름 방학에는 나팔꽃과 해바라기, 2학 기에는 코스모스와 국화, 겨울에는 동백을 제시함으로써 꽃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④ (마)의 '갑자기 꽃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그대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어서다.'와 같이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문체를 쓰고 있다.

⑤ (가)의 '철마다 꽃들이 차례로 피어나 자태를 뽐낸다.'(의인법), (다)의 '마치 강의실 바닥에 장미꽃이 피어 있는 듯하다.'(직유법) 등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03 ③ | '철마다 꽃들이 차례로 피어나 자태를 뽐낸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어 제가 피어날 철에 만개하는 것이다.'를 통해 글쓴이는 꽃이 개화 시기에 맞게 꽃을 피우는 속성을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04 ② | '훌륭하다'는 '나무랄 데가 없다. 칭찬할 만하다.'라는 의미로, 대상에 대한 평가의 의도를 담고 있다. 따라서 평가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은 ①이 아니라 ⑤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마)에서 '갑자기 꽃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그대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어서다.'를 통해 글쓴이는 ⑦을 위하여 꽃 이야기로 글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③ (마)에서 '참 어리석은 질문이네. ~ 가장 훌륭한 꽃은 없다.'를 통해 ⑤이 아닌 ⑥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⑥의 반응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④ (마)에서 '가장 훌륭한 꽃은 없다. 저마다 훌륭하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어 제가 피어날 철에 만개하는 것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마)에서 "무엇이 가장 훌륭하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질문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05 ⑤ | (나)에서 글쓴이는 '왜 그대들은 하나같이 초봄에 피어나지 못해 안달인가?'라고 하며 일찍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태도를 경계하고 있다. 그리고 (다)에서 '다소 늦더라도, ~그대의 계절을 준비하라.'라고 하며 자신의 전성기를 위해 준비하고 하였으므로 전성기가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내용은 이 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다.

06 피는 시기가 제각각인 꽃의 생태를 인간의 삶과 연관 지음으로써 독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주제를 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꽃은 친숙한 소재이고, 피어나는 시기와 매력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과 연관하여 서술한 것이다.

07 ③ | (바)에서 글쓴이가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일찍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성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소년등과'는 일찍 출세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소년등과'하기보다는 일찍 출세하는 것에 가치를 두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8 ② | <양반전>에서 평민 부자는 상공업의 발달로 새로운 계층이 등장했음을 보여 주며 돈으로 신분을 사고파는 세태를 통해 신분제가 붕괴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으나, <보기>의 '증서'에 담긴 내용을 통해 글쓴이가 풍자하고자 한 사회의 문제점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귀는 일산 밑 바람으로 하여 희어지고 ~ 마당에는 학을 먹일 것이다.'를 통해 일하지 않고도 무위도식하는 양반들의 모습을 알 수 있다.

③ '궁한 선비가 되어서 시골에 가 살아도 ~ 갖은 형벌을 해도 감히 원망할 수 없는 것이다.'를 통해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고롭히고 수탈하는 양반들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문과의 홍패라는 것은 두 자밖에 안 되지만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돈 자루라고 할 수 있다.'를 통해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양반들의 모습을 알 수 있다.

⑤ '조금만 공부하면 크게는 문과에 오르고 작아도 진사는 할 수 있다. 문과의 홍패라는 것은 두 자밖에 안 되지만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돈 자루라고 할 수 있다.'를 통해 얇은 지식으로도 벼슬을 얻어 부귀영화를 누리는 양반들의 모습을 알 수 있다.

(2) 글로 문제 해결하기

시험 문제 미리 보기

본문 141~146쪽

- | | | | | |
|----------|----------|------|----------|-----|
| 1 수상한 관점 | 2 ③ | 3 관점 | 4 ③ | 5 ② |
| 6 ④ | 7 해설 참조 | 8 ⑤ | 9 해설 참조 | |
| 10 ② | 11 해설 참조 | 12 ① | 13 해설 참조 | |

- 1 수상한 관점 | ‘수상한’이라는 말은 ‘보통과는 달리 이상하여 의심스럽다.’라는 뜻으로 다소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 ‘수상한 관점’은 사람들이 어떤 대상이나 지식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인식의 잘못된 부분을 의심하고 파헤치는 내용의 글임을 암시하려는 글쓴이의 의도가 담긴 표현이다.
- 2 ③ | (가)에서 청소년 노동 문제는 “고용·피고용 관계에서 오는 종속성에 더해 ‘아르바이트’라는 취약성, 게다가 나이의 취약성까지 더해지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였다.
- 3 관점 | (가)에서 ‘청소년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함께 바뀌지 않는 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 4 ③ | (나)에서 청소년 노동을 소수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교육 문제에만 집중할 뿐 노동 문제에는 관심이 부족했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청소년 노동을 소수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청소년의 교육 문제에만 집중할 뿐 노동 문제에는 관심이 부족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청소년 노동을 소수의 문제로 보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라 할 수 있다.
② 글쓴이는 청소년 노동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청소년이 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일반인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였다.
④, ⑤ 글쓴이는 국가 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조사가 주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조사를 확대하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 5 ② | (나)에서 청소년 노동의 증가 원인은 노동 세계의 변화와 교육 사다리의 붕괴라고 하였다.
- 6 ④ | (다)에서 청소년 노동자를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부르며 예비 노동자로 보고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고, 청소년은 지금,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노동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 7 모욕의 중단과 시급 인상 | (라)의 ‘실제 청소년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문제는 모욕의 중단과 시급 인상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8 ⑤ | (마)에서 청소년 노동 문제의 원인은 노동 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하였다.

9 청소년이 노동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들거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 | (마)의 ‘바람직한 것은 청소년이 노동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들거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에 제시되어 있다.

10 ② | (바)에서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 주유소에는 20대 청년들이나 장년층이 일하며, 청소년은 다양한 곳에서 매우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11 청소년의 노동이 불안정한 노동으로 점차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청소년의 노동 형태가 하루살이 노동이나 파견 노동, 특수 고용 등 불안정한 노동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청소년 노동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더 은폐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12 ① | (사)에서 노동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은 여러 이유로 노동법을 안다고 해도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노동법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②, ④ ‘노동법이 전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해도 갑을 관계에 종속된, 게다가 나이 어린 청소년이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권리 보장을 요구하기는 힘들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⑥ ‘청소년 노동자들은 근로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거나 근로 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아예 적용조차 되지 않는 영세 사업장에 주로 몰려 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13 청소년들의 자력화를 지원하고,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운동을 함께 전개해야 한다. | ‘법적인 차원의 노력을 넘어서야 해결은 시작된다. 청소년들의 자력화를 지원하고,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운동을 함께 전개해야 하는 이유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학습 활동 문제로 확인

본문 150쪽

- | | | |
|-----|---------|-----|
| 1 ① | 2 해설 참조 | 3 ④ |
|-----|---------|-----|

- 1 ① | 글쓴이는 청소년을 ‘예비 노동자’로 보는 시각은 청소년을 ‘온전하지 못한 노동자’로 바라보게 하여 청소년 노동자는 적게 주고 함부로 부려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한다고 하였다.

- 2 부모 동의서를 받기 힘든 가정의 청소년들은 비공식 노동에만 접근할 수 있으며, 학교가 노동을 규정 위반으로 삼다 보니 학교의 도움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 글쓴이는 청소년의 노동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청소년이 노동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들거나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3 ④ | 전의문에 제시할 해결 방안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어야 한다.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편의를 위한 해결 방안은 독자의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

내신 대비 문제

본문 151~155쪽

- | | | | | |
|------|------|------|----------|-----------|
| 01 ⑤ | 02 ⑤ | 03 ④ | 04 ⑤ | 05 해설 참조 |
| 06 ② | 07 ② | 08 ⑤ | 09 해설 참조 | 10 ⑤ 11 ③ |
- 주관식** 1 소제목, 해결 방안 2 노동, 불안정, 교육 사다리
 3 아르바이트생 4 모욕, 시급 인상 5 금지, 노동 환경
 6 자력화, 사회적 지위

01 ⑤ | <보기>의 학습 목표는 청소년 노동 문제에 대해 쓴 글을 통해 글 속에 담긴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노동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적합한 매체를 활용했는지 평가하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2 ⑤ | 이 글에서 청소년 노동과 관련한 정부의 인터뷰 자료를 인용한 부분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소제목과 관련하여 청소년 노동을 소수의 문제로 보는 문제점, 청소년 노동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 등을 언급하고 있다.
 ② ‘청소년 노동은 소수의 문제이다?’를 통해 청소년 노동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소제목으로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나)를 통해 청소년 노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청소년 노동을 소수의 문제로 보고 있는 기존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④ (나)에서 소제목 ‘청소년 노동은 소수의 문제이다?’라고 묻고 이에 대해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여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03 ④ | ‘정부 정책을 ~관심이 부족했다.’는 ⑤에, ‘청소년 노동을 ~보기 때문이다.’는 ⑦에, ‘조사 기관에 ~것은 분명하다.’는 ⑨에, ‘국가 기관이나 ~높아질 것이다.’는 ⑩에 해당한다.

04 ⑤ | 이 글에서 청소년 노동이 늘어난 원인으로 노동 세계의 변화, 개선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불안정 노동의 확산 현상으로 맞벌이를 넘어 가족 구성원이 모두 벌이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교육 사다리의 붕괴 등을 언급하고 있다.

05 청소년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함께 바뀌어야 청소년 노동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 (가)의 ‘청소년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함께 바뀌지 않는 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를 통해 알 수 있다.

06 ② | (가)에서 아르바이트생이라는 말로 인해 청소년 노동을 임시적, 비정상적 상황으로 보고,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는, 온전하지 못한 노동자라는 관점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07 ② | (다)에서 청소년 노동자를 ‘지나치게 돈을 좋아하는 아이들’로 바라봄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노동 현장의 구조적 모순으로 보지 않고 ‘청소년이 노동하고 있다는 사실’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③ (가)에서 청소년을 예비 노동자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적게 주고 함부로 부려도 된다는 사회적 허용이 뒤따른다.’라고 하였다. <보기>에서 ‘시급이 너무 적으니까 일할 기분이 안 나오’, ‘시급이 적다고 말씀드렸더니 다음 날 가게 출입문에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공고문을 붙이셨어요.’라고 했으므로 사장님은 노동하는 청소년을 예비 노동자의 관점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최저 임금에 턱걸이한 시급은 너무 낮아 장시간 일할 수밖에 없다. 모욕을 견뎌야 할 시간이 그만큼 늘어난다.’라고 했으므로, <보기>에서 시급 인상이 되지 않으면 모욕을 견뎌야 할 시간이 늘어난다는 문제도 발생하겠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⑤ <보기>에서는 ‘시급이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면서 시급 인상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나)에서 ‘실제 청소년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문제는 모욕의 중단과 시급 인상’이라고 했으므로, <보기>는 실제 청소년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문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08 ⑤ | (나)에서 청소년의 노동을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노동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그 효과를 조사한 자료는 이 글의 내용을 보완할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

09 ④: 청소년을 지금 여기에서 일하는 노동자,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자로 바라보아야 함. / ⑤: 청소년이 노동을 선택하지 않아 되는 조건을 만들거나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함. | (가)에서 청소년을 예비 노동자로 바라보는 문제 상황에 대해 ‘청소년은 예비 노동자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일

자리를 구하고 있는 노동자이다.'라고 하였다. (다)에서 청소년 노동자를 양극단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문제 상황에 대해 '바람직한 것은 청소년이 노동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들거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10 ⑤ | ⑧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일을 하는 많은 업종이 파견 노동, 특수 고용 등 불안정한 노동으로 변하고 있고, 직접 고용의 방식이 아니라 알선 업체를 통한 간접 고용의 방식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안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절하다.

- 11 ③ | (나)는 청소년의 노동법 교육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차원의 노력을 넘어서야 해결이 시작된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① 시민 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법적인 차원의 노력을 넘어선 해결 방안에 해당한다.
②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은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는 것에 해당한다.
④ 청소년 노동자의 자력화를 지원하고 부당한 처우를 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법적인 차원의 노력을 넘어선 해결 방법에 해당한다.
⑤ 사업주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는 것에 해당한다.

대단원 종합 문제

본문 156~161쪽

- 01 ③ 02 ② 03 ④ 04 ④ 05 ② 06 ①
07 ① 08 ① 09 ③ 10 ③ 11 ② 12 ④
13 해설 참조 14 ⑤

- 01 ③ | (다)에서 청소년 노동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발표되었다고는 했으나, 이 대책의 실현 가능성은 분석하고 있는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참 어리석은 질문이네. ~ 이렇게 생각했다면,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다.'를 통하여 질문에 대해 예상되는 반응을 제시하여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나)는 인생의 선배로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성공에 대한 조바심으로 좌절하는 젊은이에게 조언하는 친근한 말투로 서술하고 있다.

④ (다)에서는 청소년 노동과 관련하여 최저 임금의 문제, 임금이 부당하게 깎이는 문제, 막말과 위협의 문제, 모욕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여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

⑤ (라)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청소년 노동은 소수의 문제이다?'와 같은 소제목으로 제시하고,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문제점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02 ② | (가)와 (나)는 인간의 삶을 꽃의 생태와 연관 지어 설명함으로써 젊은이들에게 삶과 성공에 대한 인식을 바꾸도록 설득하고 있다. 계절에 맞게 피는 꽃을 통해 인간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은 아니다.

- 03 ④ | <보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했을 때 노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궁금하다고 하였으므로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이 노동에 참여하는 비율과 학교 밖 청소년이 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을 조사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04 ④ | (가)에서 글쓴이는 모든 꽃은 그 나름의 가치가 있으므로 피는 시기와 무관하게 훌륭하다고 했다. 따라서 도서관의 모든 책들도 그 나름의 가치가 있으므로 가장 가치 있는 책을 묻는 질문에는 ⑦과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 05 ② | ①의 앞 문장에서 청소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②의 뒤 문장에서는 법적인 노력만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청소년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인 '그러나'가 가장 적절하다.

- 06 ① | 글쓴이는 꽃은 저마다 피는 계절이 다르며 모든 꽃은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장 화려한 자태를 자랑하는 매화가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07 ① |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읽기'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 가치관, 신념 등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능동적 읽기 활동이면서, 독자가 특정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①은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식, 가치관 등을 동원한 반응도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08 ① | ⑥는 추운 겨울의 시련을 이겨 내고 꽃을 피우는 선구자적 모습을 나타내는 데 반해, ⑧는 다른 사람보다 빨리 성공하는 삶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② <보기>는 추운 겨울의 시련을 이겨 내고 꽃을 피우는 매화를 예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⑥는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⑥는 빠른 성공을 의미하므로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시련을 이겨 내고 꽃을 피우는 모습은 ⑥에 해당한다.

④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속성은 ⑥와 ⑥에 모두 드러나 있다.

⑤ <보기>의 글쓴이는 추운 겨울의 시련을 이겨 내고 꽃을 피우는 매화를 예찬하고 있으나, ⑥가 다른 꽃과 더불어 가장 훌륭한 꽃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09 ③ | 이 글에서 문제 상황에 대한 여러 전문가의 해결 방안을 인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10 ③ | (다)에서 청소년이 노동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차원의 노력을 넘어서야 해결이 시작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노동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청소년 노동자를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과 '지나치게 돈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 청소년 노동자들이 노동을 선택하는 것은 생활비 마련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 활용,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적인 생활, 진로 탐색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

④ (가)에서 '실제 청소년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문제는 모욕의 중단과 시급 인상이다.'라고 하였다.

⑤ (다)에서 '법적인 차원의 노력을 넘어서야 해결은 시작된다. 청소년들의 자력화를 지원하고,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운동을 함께 전개해야 하는 이유이다.'라고 하였다.

11 ② | (나)에서 ⑦, ⑧과 같은 시각 때문에 청소년들 스스로 노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곤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⑦이 청소년이 스스로 노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된다고 한 내용은 적절하다.

12 ④ | 이 글은 청소년 노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글쓴이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13 애들에게 노동법을 가르쳐야 한다? | 이 글은 청소년 노동과 관련한 오해를 질문 형식의 소제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의 '청소년 노동 문제가 알려지면서, 청소년에게 최저 임금, 근로 기준 등 노동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흔히 얘기한다.'에서 청소년 노동에 대한 오해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14 ⑤ | <보기>에서 '어느 놈이든지 감히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코

로 잿물을 먹이고 상투를 붙들어 때고 수염을 자르는 등 갖은 형벌을 해도 감히 원망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인 '안하무인'과 어울린다.

오답 풀이 ① '겸양지덕'은 '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하는 아름다운 마음씨나 행동'이므로, 흥패를 지니고 있는 양반은 겸양지덕으로 재산을 모을 수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② '단사표음'은 '대나무로 만든 밥그릇에 담은 밥과 표주박에 든 물이라는 뜻으로, 청빈하고 소박한 생활을 이르는 말'이므로, 궁한 선비가 되어 시골에 내려가면 단사표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동분서주'는 '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뛴다는 뜻으로, 사방으로 이리저리 몹시 바쁘게 돌아다님을 이르는 말'이므로, 양반이 농사나 장사를 하지 않더라도 살기 위해서라면 동분서주해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위편삼절'은 '공자가 주역을 즐겨 읽어 책의 가죽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는 뜻으로, 책을 열심히 읽음을 이르는 말'이므로, 조금만 공부해도 벼슬을 할 수 있다는 양반의 이로운 점과 위편삼절하는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

서술형 종합 문제

본문 162쪽

01 예시 답안 매화는 가장 먼저 피는 꽃이므로 남들보다 일찍 성공하는 삶을 의미하고, 국화는 가을철에 피는 꽃이므로 늦게 성공하는 삶을 의미한다. 글쓴이는 꽃이 피는 계절이 따로 있듯이 사람도 화려한 기개를 펼칠 자신만의 때가 있으므로 자신의 전성기를 위해 준비하는 자세가 올바른 삶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다.

출제 의도 이 글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비유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일찍 성공하는 삶을 초봄에 꽃을 피우는 '매화'에, 늦게 성공하는 삶을 가을에 꽃을 피우는 '국화'에 비유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매화와 국화가 의미하는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글쓴이가 지향하는 올바른 삶의 자세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4
	위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한 경우	2
형식과 표현	160자内外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1

02 예시 답안 청소년 노동을 소수의 문제로 봄으로써 청소년의 교육 문제에만 집중할 뿐 노동 문제에는 관심이 부족했다. 그리고 청

소년 노동이 증가한 것은 노동 세계의 변화로 가족 구성원이 모두 벌이에 나서야 하는 상황, 교육 사다리의 붕괴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도록 유도되는 상황 때문이다.

출제 의도 이 글은 청소년 노동의 문제점과 원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글이다. 청소년 노동을 소수의 문제로 봄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과 청소년 노동이 증가한 원인을 올바로 파악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청소년 노동을 소수의 문제로 봄으로써 발생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청소년 노동이 증가한 원인을 두 가지 이상 언급한 경우	4
	위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한 경우	2
형식과 표현	160자 내외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1

03 예시 답안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부름으로써 발생하는 삼중 효과 문제는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임시적, 보조적 생계 수단이라는 오해가 덧입혀져 있어 청소년의 노동 필요가 평가 절하된다라는 것, 학업에 전념해야 할 학생이 노동 현장에 있으니 청소년 노동이 임시적, 비정상적 상황이 된다는 것, 온전하지 못한 노동자라는 관점이 형성되어 적게 주고 함부로 부려도 된다는 사회적 허용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출제 의도 이 글에서 청소년 노동의 문제점 중의 하나인 ‘아르바이트생이란 말의 삼중 효과’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부름으로써 발생하는 세 가지 문제를 모두 서술한 경우	4
	세 가지 문제 중 두 가지를 서술한 경우	2
	세 가지 문제 중 한 가지를 서술한 경우	1
형식과 표현	220자 내외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1

10단원 국어의 변화와 발전

(1) 국어의 어제와 오늘

시험 문제 미리 보기

본문 169~173쪽

- | | | | | | |
|-----|-----|-----|-----|-----|-----|
| 1 ⑤ | 2 ③ | 3 ③ | 4 ③ | 5 ⑤ | 6 ② |
| 7 ② | 8 ④ | 9 ④ | | | |

- ⑤ | (가)에서 말의 뜻이 바뀐다고만 했을 뿐, 그 의미가 단순한 내용으로 바뀐다고 하지는 않았다.
- ③ | 한자 차용 표기법으로 우리말의 단어나 문장을 표시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고유 명사 이외의 단어도 적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 ㉠은 ‘중국과 달라’, ㉡은 ‘통하지 아니하여서’, ㉢은 ‘가엾게 생각하여’, ㉣은 ‘쉽게 익혀서’로 풀이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③ | 현대어 풀이를 참고할 때 ‘스뭇·디’는 ‘통하지’로 풀이되므로 오늘날에는 사라진 단어임을 알 수 있다.
- ⑤ |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성조를 표시한 것은 맞지만, 모든 글자에 점을 찍은 것은 아니다.
- ② | 앞 음절의 끝소리가 뒤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발음될 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 적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중세 국어에서는 8개의 자음만을 받침으로 적는 8종성법을 사용했다.
 ③ 당시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④ 거듭 적기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거듭 적기 방식은 앞 음절의 종성을 뒤 음절의 초성에도 적는 것으로, 이어 적기 방식과 끊어 적기 방식의 과도기적 표기법이다.
 ⑤ 끊어 적기 방식으로 현대 국어의 표기상의 특징이다.

자료실

• 8종성법

국어의 종성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자만으로 족히 사용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훈민정음 해례본》(1446)의 종성해에 제시되어 있다.

- ② | ‘어·린’은 ‘어리다’의 어간 ‘어리-’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 이루어진 말이므로 이어 적기의 예로 볼 수 없다.
- ④ | ‘전·초’와 같이 이미 소멸하여 쓰이지 않는 단어를 통해 ㄴ을, ‘:어엿·비’와 같이 의미가 전혀 다르게 쓰인 단어를 통해

글을 확인할 수 있다.

- 9 ④ | ⑤는 ‘중국과 달리’로, ⑥는 ‘하는 바가 있어도’로 풀이되므로, 현대 국어에서 의미가 축소된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학습 활동 문제로 확인

본문 176쪽

1 해설 참조 2 ⑤ 3 ③

- 1 한자로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능히 펼치지 못하기 | ‘훈민정음언해본’의 ‘어·린百·嬖姓·성·이니르·고·겨·흙·배이·서·도무·춤·내제·쁘·들시·러펴·디·몬흙·노·미하·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 ⑤ | ‘쁘·들’의 ‘쁘’처럼 음절의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었다.
- 3 ③ | ‘始祖’에서 주격 조사 ‘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ㅣ’가 붙어 있으므로 현대 국어와 문법 요소가 동일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내신 대비 문제

본문 177~179쪽

01 ⑤ 02 ① 03 ③ 04 ④ 05 ③
06 ③ 07 해설 참조

주관식 1 향찰 2 한글 3 모음 조화
4 성조 5 형태 6 축소 7 에

- 01 ⑤ | (나)에서 한자 차용 표기법이 우리말의 단어나 문장을 표시하는 데까지 발전했다고 하였다.

- 02 ① | 시대가 바뀜에 따라 언어가 함께 변화하는 성질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 03 ③ | 문법 요소가 변화한 예로 주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를 제시했지만, 문법 요소의 변화가 주로 주격 조사에서 나타났는지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달리 이어 적었으며,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② (라)의 ‘어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 변화하기도 합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④ (나)의 “모음에 오늘날에는 없는 ‘ ’가 있어서 ~”에서 알 수 있다.

⑤ (나)~(마)에서는 ‘훈민정음언해본’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현대 국어와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 04 ④ | (나)에서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화가 대체로 잘 지켜졌다고 하였다.

- 05 ③ | ‘스’와 ‘못’은 글자 왼쪽에 점이 없으므로 평성, ‘·디’는 점이 1개 있으므로 거성이다.

오답 풀이 ① ‘나·랏·말’에서 ‘나’는 평성, ‘·랏’은 거성, ‘·말’은 상성이므로, 상성과 거성이 이외에 평성도 들어 있다.

② ‘中등’은 점이 없어 평성이고, ‘百·嬖’은 점이 하나라서 거성이므로, 들은 성조가 다르다.

④ ‘어엿·비’에서 ‘·비’는 점이 하나이므로 거성이다. 거성은 높은 소리이다.

⑤ ‘便僻安한·크’에서 ‘便僻’은 점이 없으므로 평성, 곧 낮은 소리이고, ‘·크’는 점이 하나이므로 거성, 곧 높은 소리이다.

- 06 ③ | ㉠은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단어이고 ㉡은 현대 국어에서 단어의 의미가 이동한 사례이다. 현대어 풀이에서 ‘스·못·디’는 ‘통하지’로 풀이되고 있으므로 지금은 쓰이지 않는 단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린’은 ‘어리석은’으로 풀이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적은’의 의미로 쓰이므로 단어의 의미가 이동한 사례임을 알 수 있다.

- 07 음절의 끝소리가 뒤 음절에 이어져 발음될 때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었으며, 띄어쓰기도 하지 않았다. | (다)의 “당시에는 ‘:말씀+·이’, ‘자름+·이니·라’를 적을 때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띄어쓰기도 하지 않았습니다.”를 통해 중세 국어의 표기상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2) 국어의 위상과 발전

시험 문제 미리 보기

본문 181~184쪽

1 ④ 2 해설 참조 3 ④ 4 ① 5 해설 참조
6 ⑤ 7 ④ 8 ② 9 ②

- 1 ④ | 이 글에서 지구상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7,700만여 명이라고 하였는데, 이들이 모두 남한과 북한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지구상의 언어는 일 년에 30개가량이 줄었다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② (나)의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어의 언어 인구’는 약 7,700만여 명입니다.” ‘우리나라는 1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에서 한국어의 언어 인구는 7,700만 명이라고 하였고, 벵골어가 1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라고 하였다.

⑤ (나)의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무엇일까요? 11억 이 넘는 인구가 사용하는 중국어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 최소 2천 명 이상의 인구가 일상어로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 (가)의 “언어가 ‘살아 있기’ 위해서는 최소 2천 명 이상의 인구가 일상어로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에서 언어가 살아 있기 위한 요건을 알 수 있다.

- 3 ④ | (다)에서 한반도가 중국어와 일본어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 영어의 영향력, 남북 분단으로 한국어 사용 인구 상당수가 원활히 소통하지 못하는 점을 한국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 4 ① | (라)에서 “인간이 인간다움을 실현할 도구는 ‘말’입니다. 반드시 인간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 5 고종 황제가 모든 법령과 칙령은 국문으로 기록하라는 칙령을 내린 이후부터이다. | (마)의 둘째 문단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어를 한글로 기록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은 불과 백 년 전에 고종 황제가 모든 법령과 칙령은 국문으로 기록하라는 칙령을 내린 이후부터입니다.’라고 하였다.

- 6 ⑤ | (바)에서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은 한국어를 지키기 위해 한국어로 잡지와 신문을 내고 한국 문화와 역사를 한글로 기록하였는데, 이는 모두 한국어를 한글로 자유롭게 쓰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7 ④ | 한글 덕분에 한국이 문화적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으나, 다문화 사회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 8 ② | 문화적 성장의 이면에는 한국어와 한글이 놓여 있으며, 한국어와 한글은 민족 문화의 꽃을 피우는 든든한 밑거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였다.

- 9 ② | ‘한국어와 한글을 더욱 아끼고 생활 속에서 그 가치를 발

견하고 의식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를 통해 글쓴이의 집필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학습 활동 문제로 확인

본문 186쪽

- 1 ④ 2 ③ 3 ①

- 1 ④ | 유네스코에서는 남북 분단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 중 상당수가 원활히 소통하지 못하는 점을 경고했다.

- 2 ③ | ‘삼일 운동 이후에는~ 가능한 일이었지요.’를 통해 ㄱ, ㄴ, ㄷ이 한국어가 소멸되지 않을 수 있었던 요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 많은 사람이 대학 교육과 같은 고등 교육을 받아 한글로 지식을 생산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3 ① | ‘한글 덕분에 누구나 지식과 정보를 만들어 내고 공유하고 저장하고 유포할 수 있습니다. 한글 덕분에 한국은 문화적 민주주의가 확립된 것입니다.’라는 내용에서 언어가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매개체로서 문화적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내신 대비 문제

본문 187~190쪽

- 01 ① 02 ① 03 ④ 04 해설 참조 05 ②
06 ① 07 해설 참조 08 ④ 09 해설 참조

- 주관식 00 1 중국어, 한국어, 13 2 언어의 통일 3 고종 황제
4 한국어 말살 정책 5 한글, 경제성 6 한국어, 한글

- 01 ① | (가)의 ‘한국어는 결코~ 경고하고 있습니다.’에서 한국어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 02 ① | (가)에서는 6,500여 개의 언어 중 한국어가 13위에 속하는 언어로 결코 작은 언어가 아니라고 했고, (나)에서는 미국의 학교에서 한국어 반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으므로, (가)와 (나)에서 모두 한국어의 높은 위상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03 ④ | (가)에서는 지구상의 언어가 점점 사라지고 언어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상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일 년에 30개가량의 언어가 사라진 백 년의 세월을 지난 셈이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백 년 동안은 몇 개의 언어가 사라지게 될까요?’ 등과 같이 구어체를 활용하여 독자와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② 일본의 언어 정책을 예로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돋고 있다.
③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언어의 수에 대한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무엇일까요? 11억이 넘는 인구가 사용하는 중국어입니다.’와 같이 물고 담하는 방식으로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04 언어는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다. | ⑦에서는 지난 백 년 동안 지구상의 언어 2,800여 개가 사라졌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언어가 시대에 따라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05 ② | 국문연구소가 말의 뜻을 연구하고 어법을 정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한 데서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알 수 있지만,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어 우리말 연구의 모든 작업이 중단되었다고 했으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나)의 셋째 문단에서 한글 덕분에 지식과 정보를 국민이 나누어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경제와 문화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임을 알 수 있다.
③ (가)의 둘째 문단에서 고종 황제가 내린 칙령이 공식적으로 한국어를 한글로 기록하는 것이 가능해진 계기임을 알 수 있다.
④ (가)의 첫째 문단에서 한자는 제한된 계층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적 인 문자라서 한국인의 문화적인 역량과 정신을 온전히 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 주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셋째 문단에서 일제가 이른바 창씨개명을 강제하고 모든 언어 생활을 일본어로 하게 한 것은 한국어를 말살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06 ① | (가)의 셋째 문단에서 일제가 한국어를 조선어로 부르게 하고, 1939년부터는 이른바 창씨개명을 강제하여 모든 언어 생활을 일본어로 하게 한 한국어 말살 정책을 펼침으로써 한국어가 소멸의 위기를 겪었다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07 배우기 쉽고 경제성이 뛰어나 사용하기 쉽다. | (나)에서 한글은 배우기 쉽다고 하였고, 경제성이 뛰어나 인구의 대부분이 한글을 쓸 수 있다고 하였다.

08 ④ | (다)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문화적으로 크게 성장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의 원동력이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라는 근거는 (다)와 <보기>에서 찾기 어렵다.

09 문화적 민주주의란 누구나 지식과 정보를 만들어 내고 공유하고 저장하고 유포함으로써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나)의 셋째 문단의 내용을 통해 문화적 민주주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대단원 종합 문제

본문 191~195쪽

- 01** ③ **02** ③ **03** ② **04** ③ **05** ③
06 해설 참조 **07** ③ **08** ③ **09** ② **10** ④
11 ② **12** ② **13** 해설 참조

01 ③ | 이 글은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점을 음운, 표기, 어휘, 문법 요소의 변화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지만, 국어가 지난 문제점을 밝히고 있지 않다.
② 대상(국어)에 대한 평가를 시대에 따라 달리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④ 국어에 대한 접근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
⑤ 중세 국어의 특징을 항목별로 살펴보고 있을 뿐, 국어의 핵심 개념을 설명한 후 그에 근거하여 다른 대상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02 ③ | 어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거나 사라진다고 했을 뿐, 새롭게 생겨나는 말보다 사라지는 말이 더 많다고 설명하지 않았다.

03 ② | 중세 국어에서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다는 내용은 이 글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04 ③ | 훈민정음은 새롭게 창조한 문자이므로 기존에 사용한 문자를 이용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5 ③ | ‘:문·속·노·미·하·니·라’를 현대어로 풀이하면 ‘못하는 사람이 많다.’로 풀이되므로 주격 조사 ‘가’가 쓰일 자리에 ‘이’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글자 왼쪽에 찍힌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노·미’에서 ‘놈’은 당시에는 ‘사람’을 의미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단어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④ ‘쁘·들’의 ‘쁘’에서 알 수 있다.

⑤ ‘쁘·들’과 ‘노·미’ 등에서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6 당시에는 주격 조사 ‘가’가 아직 생겨나지 않았다. | <보기>에서 ‘우리始祖丨’은 ‘우리 시조가’로 풀이되는데, 현대 국어에서 주격 조사 ‘가’가 쓰이는 자리에 ‘丨’가 쓰였으므로 당시에는 주격 조사 ‘가’가 쓰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마)에서는 ‘훑·배이·셔·도’가 ‘하는 바가 있어도’로 풀이되는 것을 예로 들며 “당시에는 주격 조사 ‘가’가 아직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라고 하였다.

07 ③ | (나)의 한글이 배우고 사용하기 쉬워 지식과 정보를 만들고 공유하는 도구로 쓰인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08 ③ | (가)에서 고종 황제가 모든 법령과 칙령을 국문으로 기록하라는 칙령을 내린 것이 지식인층, 지배층, 귀족층이 한글을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 데서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어를 한글로 기록하게 된 것은 고종 황제 이후임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한자가 폐쇄적인 문자여서 한국인의 정신을 온전히 발현하지 못했다고 했을 뿐, 왕조 기록물이나 선비들의 문집이 한국인의 정신을 발현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나)에서 이민자들에게 언어와 문화를 단일화하려는 정책을 펼쳤지만 실패한 것은 필리핀이 아니라 미국의 사례임을 알 수 있다.

⑤ 미국의 이민자들이 영어를 배우지 않는 이유가 자신들의 문화적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인지는 이 글에서 알 수 없다.

09 ② | 한글 덕분에 경제와 문화가 균형 있게 성장하여 문화적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오늘을 있게 한 한국어의 힘’이 소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10 ④ | 지식과 정보를 국민이 나누어 가질 때 경제와 문화가 균형 있게 성장하고, 한글 덕분에 누구나 지식과 정보를 만들어내고 공유하고 저장하고 유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문화적 민주주의’가 가장 적절함을 알 수 있다.

11 ② | (가)에서는 우리 문화가 세계로 뻗어 나가 환영받는 것을 언급하며 한국어와 한글이 낯선 세계인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고 하였고, (나)에서는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12 ② | (가)에서 우리의 대중문화가 세계 곳곳에서 환영받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성장의 이면에는 선조들이 지켜 낸 한국어와 한글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한류 열풍의 발생 원인은 ‘한국어와 한글을 통한 문화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13 한류 열풍이 일어나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진다. | (나)에서 한국의 대중음악 등으로 인해 미국에서 한류 열풍이 일어났고,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며, 이에 따라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늘어났다고 하였으므로 한류 열풍은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서술형 종합 문제

본문 196쪽

01 **예시 답안** ‘훈민정음언해본’에 나타난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으로는 자주 정신(우리나라 말에 잘 맞는 글자를 만들.), 애민 정신(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글자를 만들.), 창조 정신(이전에 없던 새로운 글자를 만들.), 실용 정신(누구나 쉽게 익혀 사용할 수 있는 글자를 만들.)이 있다.

출제 의도 ‘훈민정음언해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 이를 통해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중세 국어로 표기된 ‘훈민정음언해본’의 내용을 먼저 현대어로 풀어 보도록 한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창제 정신 네 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경우	4
	구체적인 내용 없이 창제 정신만 언급한 경우	2
형식과 표현	150자 내외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1

02 **예시 답안** 지금은 쓰이지 않는 말소리가 있었다. / 음절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었다. / 모음 조화가 대체로 잘 지켜졌다. / 음절의 높낮이를 통해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성조가 있었다.

출제 의도 ‘훈민정음언해본’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음운상의 특징을 (나)를 통해 확인하는 문제이다. ‘훈민정음언해본’에 제시된 음운과 어휘들을 중심으로 중세 국어의 음운상의 특징을 파악해 본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나)에 제시된 단어를 사용하여 음운상의 특징 네 가지를 모두 서술한 경우	4
	음운상의 특징 네 가지 항목 중 세 가지만 언급한 경우	3
	음운상의 특징 네 가지 항목 중 두 가지만 언급한 경우	2
	음운상의 특징 네 가지 항목 중 한 가지만 언급한 경우	1
형식과 표현	각각 완성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1

03 예시 답안 한국어와 한글은 우리 문화 발전의 밑거름이며, 한국 어와 한글을 아끼고 그 가치를 발견하고 의식하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출제 의도 (다)의 내용을 통해 글쓴이의 집필 의도를 이해하는 문제이다. (다)의 핵심 문장인 ‘한국어와 한글은~자리 잡고 있습니다.’와 ‘한국어와 한글을~기울여야 할 것입니다.’에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다)의 핵심 문장을 활용하여 글쓴이의 의도를 제대로 서술한 경우	3
	글쓴이의 의도를 서술했으나 (다)의 핵심 문장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	2
형식과 표현	70자 내외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1

11단원 비평과 생산**(1) 더불어 살기****시험 문제 미리 보기**

본문 203~204쪽

1 ④ 2 산그늘 3 한국말 4 ②

1 ④ | 화자는 시적 대상인 동남아인 두 여인에게서 이질감을 느끼지만 곧이어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그들이 우리말 사투리를 사용하는 모습에서 우리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식하며 동질감을 느낀다.

오답 풀이 ① 7행~8행, ‘짐짓 차창 밖 보는 척하며 / 한마디쯤 알아들어 보려고 했다.’에서, 화자는 호기심에 동남아 여인의 대화를 엿듣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③ 9~11행, ‘휙 지나가는 먼 산굽이 / 나무 우거진 비탈에 / 산그늘 깊었다’에서, 낯선 타국에서 살아가는 동남아 여인들의 힘든 삶에 대한 연민과 걱정의 정서를 객관적 상관물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⑤ 21~23행, 외국 말로 대화하고 잠꼬대하는 두 여인이 아이에게 한국 말로 달래는 것으로 보아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 여성임을 알 수 있다.

2 산그늘 | 어두운 이미지의 ‘산그늘’을 통해 낯선 타국에서 살아가는 동남아 여인들의 힘든 삶을 표현하고 있다.

3 한국말 | 화자는 한국말로 아기 둘을 토닥거리며 달래는 두 여인을 보고 두 여인도 우리 공동체의 일원임을 깨닫고 반성하게 된다.

4 ② | 처음과 마지막을 유사하게 표현하는 것은 수미 상관으로 이 시에는 수미 상관이 쓰이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④ ‘두 여인이 소곤거렸다’, ‘나는 말소리에 귀 기울였다’와 같은 짧은 문장을 활용하고 있으며, 열차 안에서 화자가 관찰하며 깨달은 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달하고 있다.

③ ‘내가 왜 공연히 호기심 가지는가’에서 물음을 형식을 통해 화자의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⑤ ‘울기 말거레이 / 집에 다 와 간데이’에서 동남아인 여인들의 말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그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학습 활동 문제로 확인

본문 206쪽

1 ② 2 해설 참조 3 ③

1 ② | 두 여인이 아기를 달랠 때 한국말을 쓴 것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한국말의 사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지, 화자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두 여인은 칭얼거리는 아기들을 한국말로 달래고 있다.
③ 화자가 ‘짐짓 차창 밖 보는 척하며 / 한마디쯤 알아들어 보려고’ 하는 행위는 두 여인이 외국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느끼는 호기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두 여인이 서로 대화할 때와 잠꼬대를 할 때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 말’을 쓰고 있다고 했다.

⑤ 두 여인은 서로 대화할 때, 잠꼬대를 할 때는 외국 말을 쓰고 아이를 달랠 때는 한국말을 쓰고 있으므로 모국어와 한국어의 이원적 언어 사용이 나타난다.

2 내가 왜 공연히 호기심 가지는가 | 화자는 동남아인 여인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다가 이내 그것이 차별적 시선임을 자각하고 반성한다.

3 ③ | ‘두 여인’은 결혼 아주 여성이다. 이러한 아주민들은 한국 문화를 낯설어하고 한국말이 서툴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을 만날 때는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고 한국말이 서툴더라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내신 대비 문제

본문 207~208쪽

01 ⑤ 02 ⑤ 03 ⑤ 04 ① 05 해설 참조

주관식 1 이질감, 동질감 2 호기심 3 산그늘

4 편견, 차별적, 반성 5 친근감, 연민, 공동체

01 ⑤ | 이 시는 화자가 일상에서 경험한 상황을 차분하고 솔직담백하며 평이한 시어로 전술하고 있다. 격양된 어조로 시적 대상인 두 여인의 삶과 애환을 감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다.

02 ⑤ | 동남아인 두 여인에게 호기심을 가졌던 화자는 18행에서 ‘나는 왜 공연히 호기심 가지는가’라고 반성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두 여인이 한국말로 아기를 달래는 것에서 두 여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느끼고 있다. 따라서 더 큰 호기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⑤ | 이 시에서 ‘산그늘’은 두 여인의 삶이 외롭고 힘듦을 보여주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보기>에서 ‘산꿩’은 여인이 승려가 되는 날의 서러운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자료실

• 백석, <여승>

- 주제: 여승이 된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

- 성격: 서사적, 애상적

- 해제: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어려운 현실을 살아갔던 한 여인이 여승이 되기까지의 삶을 보여 주는 시이다.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여승이 된 여인과 대면한 화자가 과거의 여인을 회상하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 나타나며, 시상이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04 ① | 화자는 아이를 안고 있는 두 동남아인 여인의 대화를 엿들으며 호기심을 보였다가 잠꼬대하는 여인을 보며 그들에 대한 자신의 차별적 시선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칭얼대는 아이를 한국말로 달래는 소리를 들으며 동남아인 여인들도 우리 공동체의 일원임을 깨닫고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05 두 여인의 대화를 엿듣고 곁눈질로 그들을 관찰한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고, 이러한 자신의 관심이 낯선 사람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 화자는 동남아인 두 여인을 바라보던 자신의 시선이 까닭없는 호기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남을 바라본 것을 반성하는 것이다.

(2) 세상 속으로

시험 문제 미리 보기

본문 211~216쪽

1 사설 2 ② 3 생활난, 취직난 4 ① 5 ④
6 ② 7 ① 8 ② 9 해설 참조 10 ⑤
11 ⑤ 12 ⑤ 13 레디메이드 인생

1 사설 | 이 글은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는 신문 기사와 달리 시사 문제를 주관적인 논조로 다루는 사설이다.

2 ② | (나)에서 ‘취직난’에 대한 근거로 일본 유학생 출신자 중 직업이 있는 자가 56%이고 나머지 44%가 무직인 상황과 보전과 연전 출신자 중 취직의 약속이 있는 자가 15% 미만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오답 풀이 ↗ 은 팔난(八難) 중의 첫째인 생활난에 대한 근거이다.

- 3** 생활난, 취직난 | (가)에서 ‘팔난(八難) 중의 첫째는 생활난’이라고 하였으며, (나)에서 ‘둘째는 취직난’이라고 하였다.
- 4** ① | ‘앞부분 줄거리’와 (가)로 보아 이 소설이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5** ④ | (가)에서 서술자는 ‘P가 소부르주아지 축에 끼이는 인텔리가 아니요, 노동자였더라면 그동안 거지가 되었거나 비상수단을 썼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P가 인텔리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 6** ② | P가 A에게 아들을 무료 견습공으로 써 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지식인인 자신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현실에서 오히려 기술을 배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들이 공부보다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한 것은 아니다.
- 7** ① | P는 지식인이면서도 취직이 되지 않는 스스로를 비판하고 있으나 기술자인 A를 부러워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 8** ② | P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A의 말에 학교에 보낼 처지가 못 된다고 답하였다.
- 오답 풀이** ① ‘우리 같은 놈은 이 짓을 해 가면서도 자식을 공부시키느라 애를 쓰는데’를 통해 A는 기술보다 공부가 우선이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③ ‘내가 학교 공부를 해 본 나머지 그게 못쓰겠으니까’를 통해 경험으로 학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A가 아니라 P임을 알 수 있다.
 ④ P가 “인쇄소 일 배우는 것도 공부지.”라고 하자 A가 “그건 그럴지만”이라고 반응하는 것을 통해 P와 A 모두 인쇄소 일도 공부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⑤ A가 “보통학교나 마쳤나요?”라고 묻는 것으로 보아 A는 보통학교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P는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아 보통학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9** “학교에 보낼 처지도 못 되고 또 보내 봤자 사람 구실도 못할 테니까…….” | P는 교육을 받고도 직업을 갖지 못한 자신을 비판적으로 여기고, 아들은 자신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일을 시키기로 한 것이다.
- 10** ⑤ | S는 창선이를 데리고 올 때 외할머니가 했던 말을 P에게 전하고 있을 뿐 창선이를 외할머니에게 보내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라)의 ‘P는 창선이보다도 더 낯이 익은 S를 찾았다.’를 통해 P는 창선이를 한동안 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② (라)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몹시 불만이었다.‘와 (마)의 ’그의 기습

에는 옛날의 반감이 솟구쳐 올랐다.’를 통해 P가 창선이의 외가인 처가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마)의 ‘저희 외할머니가 저 양복이야 띡이야 모두 해 가지고’를 통해 창선이가 입은 고구라 양복은 외할머니가 해 준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라)의 ‘첫새벽에 일어난 P는 서투른 솜씨로 화로 밥을 지어 놓고 정거장으로 나갔다.’를 통해 P는 창선이를 위해 서투른 솜씨로 밥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11 ⑤ | ⑦에는 어린 아들을 인쇄소에 맡기기로 해 놓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들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 있다.

12 ⑤ | P는 이혼한 아내에 대한 불만으로 창선이를 외가에 보내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창선이가 인쇄소에서 일하는 것을 숨기고 싶어 하는지는 알 수 없다.

13 레디메이드 인생 | 레디메이드(Ready-made)는 팔기 위해 미리 만들어진 물품에 쓰는 말이다. 식민지 지식인을 기성품에 빗대어 표현한 것에서 당대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학습 활동 문제로 확인

본문 219쪽

1 ⑤ 2 ⑤ 3 해설 참조

1 ⑤ | <삼재팔난>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생활난과 취직난의 문제를, <레디메이드 인생>에서는 식민지 조선 지식인의 취직난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나,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자료실

• 사설과 소설의 표현 방법의 차이

사설	소설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전망 등을 직접적으로 드러냄.	등장인물의 성격, 사건, 배경 등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냄.
구체적 수치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객관성을 확보함.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허구적인 서사를 통해 주제를 전달함.

2 ⑤ | 식민지 조선의 암울한 미래와 고등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지만 실업자가 된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을 때 교육을 받는 것보다 어릴 때부터 기술을 익히는 것이 그나마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3 고등 교육을 받았지만 일할 곳이 없는 지식인들이 처한 현실과 사회 구조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당대 지식인들의 무기력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레디메이드’는 ‘기성품’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레디메이드 인생’은 이미 만들어 놓고 주인을 기다리는 물건 같은 인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등 교육을 받고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P와 같은 인생을 의미한다.

④ 목적의 측면에서 사설은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석을 통해 독자를 설득하고 해당 언론사의 지향점을 드러낸다. 칼럼도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이나 주장을 드러내어 독자를 설득한다.

⑤ 사설은 특정 사안에 대해 해당 언론사의 지향점을 드러내지만, 칼럼은 필자(주로 논설위원)의 의견이나 주장을 드러낸다.

05 ③ | ⑦은 P에 대해 서술자가 평가하는 편집자적 논평이 사용된 부분으로 P의 처지를 우의적으로 드러낸 것도,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06 ③ | 이 소설에서는 인물의 이름을 ‘P, A, S’와 같이 이니셜로 설정하여 익명성을 띠게 하였다. 이는 소설 속 인물들이 특정한 이름을 가진 개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과 연결되며, 특정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개개인의 삶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개성이 존중되지 않는 당시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기를 바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

오답 풀이 ↗ ㄴ. 고등 교육을 받은 지식인인 P뿐 아니라 문선 과장인 A도 이니셜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식인으로서 타인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함은 아니다.

ㅁ. 이 소설의 중심인물인 지식인 P는 당대 일반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인물이므로 소설에 구현된 지식인의 삶이 일반적인 지식인의 모습이 아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7 ② | A는 “너무 어린데 애처롭잖아요?”라고 하면서 P의 아들이 너무 어린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08 ① | P는 고등 교육을 받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과 다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인쇄소에 취직시킨다. 따라서 P의 아들 역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쓸모없는 실업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09 ② | ⑦은 어린 아들을 노동 현장으로 보내는 아버지로서의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10 ① | ⑧는 P가 아들의 일자리를 부탁한 것에 A가 매우 놀라는 상황이므로 ‘몹시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질림.’이라는 뜻의 ‘대경실색’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② ‘동병상련’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이므로 거리가 멀다.

③ ‘유구무언’은 ‘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는 뜻으로,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못함을 이르는 말.’이므로 거리가 멀다.

④ ‘일구이언’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뜻으로, 한 가지 일에 대하여

내신 대비 문제

본문 220~223쪽

01 ④ 02 ① 03 ③ 04 ③ 05 ③ 06 ③

07 ② 08 ① 09 ② 10 ① 11 해설 참조

주관식 1 사설 2 생활난, 취직난 3 식민지, 비판적

4 편집자적 논평 5 사람 구실, 교육, 비판적

6 공부, 기술, 기술, 공부

01 ④ | (나)에는 인물과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는 나타나지만 현실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전망은 드러나지 않는다. 현실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전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은 (가)이다.

02 ① | (가)에서는 농민의 생활난과 고등 교육을 받은 지식 계급의 취직난을 다루고 있으며, (나)에서는 인텔리 계층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공통적으로 다루는 사회 문제는 고등 교육을 받은 지식인의 취업 문제라고 할 수 있다.

03 ③ | 소작료를 받는 지주는 ‘준(準)무직자라 할 만’하다고 하면서 진정한 의미로 업(業)을 가졌다 할 만한 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04 ③ | (가)는 사설로, 사설에 특정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육하원칙의 형식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해야 하는 것은 기사이다.

오답 풀이 ↗ ① 필자의 공개 여부 측면에서 사설은 개인이 아닌 신문사의 의견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필자를 밝히지 않고, 기사는 기사를 작성한 신문 기자를 밝힌다.

② 객관성의 측면에서 사설은 특정 사안에 대해 신문사의 가치 판단을 직접 드러내지만, 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작성해야 한다.

말을 이랬다 저렸다 함을 이르는 말.'이므로 거리가 멀다.
⑤ '횡설수설'은 '조리가 없이 말을 이러쿵저러쿵 지껄임.'이라는 뜻이므로 거리가 멀다.

- 11 고등 교육을 받아도 취직을 할 수 없는 P의 신세를 볼 때, 어릴 때부터 기술을 배우는 것이 자식을 위한 일이라는 의미이다. | P는 자신처럼 교육을 받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기보다는 차라리 어린 나이에 취직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 있다.

- 6 ⑤ | ⑥는 (바)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오답 풀이 ①, ④ (바)의 '복잡한 요리는 재료도 많이 필요하고, 조리 도구도 많이 사용하고, 요리 시간도 길다. 게다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설거짓거리를 너무 많이 남긴다는 점이다. ~ 하지만 볶음밥은 다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바)의 '볶음밥으로 요리를 시작하면, 요리를 아주 재미있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바)의 '볶음밥은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어 내는 음식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는 대단히 훌륭한 요리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7 ④ | ⑦은 볶음밥은 간단한 조리 도구로 쉽게 만들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자립 요리를 위한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한다.

- 8 의인법 | ①은 '밥'을 '친구'에 빗대어 나타낸 의인법과 은유법이 사용된 표현이고, ②은 '밥'이 '묵묵히 지지해 준다.'라고 하여 의인법이 사용된 표현이다.

- 9 ② | ⑦에서 볶음밥은 재료와 입맛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는 요리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 이는 재료의 조합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10 ⑤ | [A]는 재료에 따른 볶음밥의 창조성을 보여 주는 사례로 볶음밥이 재료의 조합에 따라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게 창조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11 ① | (카)에서는 실패를 극복하고 자신만의 세계관을 갖추면 진정한 어른이 된다고 하였다. 어른이 되려면 요리를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2 실패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인간의 모습을 볶음밥에 비유하여 나타내고 있다. | 글쓴이는 실수와 좌절을 극복하며 성장한 사회의 구성원들을 '실패를 바탕으로 완성된 빛나는 볶음밥'에 빗대고 있다.

(3) 진정한 어른이란

시험 문제 미리 보기

본문 225~229쪽

- 1 ① 2 유추 3 ④ 4 해설 참조 5 비유, 흥미
6 ⑤ 7 ④ 8 의인법 9 ② 10 ⑤ 11 ①

12 해설 참조

- 1 ① | 인간과 동물은 먹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인간은 동물과 달리 먹는 행위에 의미가 담겨 있고, 요리를 한다는 점에서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하였다.
- 2 유추 | 글쓴이는 어른이 되는 과정을 요리를 배우는 일에 빗대고 있는데 이처럼 두 대상의 비슷한 점에 기초하여 다른 대상의 특성을 미루어 추측하여 서술하는 것을 유추라고 한다.
- 3 ④ | 글쓴이가 제시한 자립 요리는 요리 과정과 재료가 단순한 요리여야 한다. 글쓴이는 (바)에서 많은 재료가 들어간 요리를 복잡한 요리라고 하였다.
- 4 구하기 쉬운 재료여야 한다. | (라)에서 볶음밥은 밥을 이용한 음식이며 밥은 어디에나 있다고 하였다.
- 5 비유, 흥미 | 글쓴이는 볶음밥을 요리하는 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예상 독자에게 친숙한 대상에 빗대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학습 활동 문제로 확인

본문 232쪽

- 1 ② 2 ① 3 해설 참조

- 1 ② | 볶음밥은 재료의 조합이 무궁무진하여 요리하는 사람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는 요리이므로, 정해진 조리법이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① | 인터넷 매체는 생산자와 수용자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생산자와 수용자의 관계가 일방적인 것은 인쇄 매체이다.

3 스스로 요리를 할 수 있게 되면 누군가에게 의존하여 살아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로소 어른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어린아이는 스스로 먹을 것을 챙기지 못하지만 어른은 스스로 먹을 것을 요리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을 때 어른이 된다고 보고 있다.

행위에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요리는 인간만이 하는 행동이라고 하였으므로 요리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이 아닌 의미가 담긴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가)의 ‘요리란 결국 자신이 동물이 아니라 인간임을 표현하는 창의적 활동인 셈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나)의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챙기지 못한다. 어린아이를 돌봐 주는 성인이 어린아이를 위해 요리를 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나)의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늘어난다는 뜻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다)의 ‘자신의 먹거리는 스스로 해결할 줄 아는 의젓한 인물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자립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04 ④ | (마)에서 글쓴이는 볶음밥은 밥을 이용한 음식으로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 재료인 쌀로 만든 밥에서 자립 요리를 출발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였다. 이것은 (라)에서 제시한 자립 요리 조건 중 첫 번째, 구하기 쉬운 재료여야 한다는 것에 해당한다.

05 ④ | 이 글에는 묻고 답하는 방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프라이팬’을 ‘마법사의 도구’에, 요리하는 사람을 ‘프라이팬을 든 해리 포터’에 비유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② (나)에서 별도의 재료를 사지 않아도 된다는 점, (다)에서 설거짓거리 를 많이 남기지 않는다는 점 등 볶음밥의 특징과 장점을 나열하고 있다.

③ (가)에서 ‘밥’을 ‘천덕꾸러기’에, (나)에서 ‘밥’을 ‘믿음직한 친구’에 비유하는 의인법을 사용하여 볶음밥을 친근하게 표현하고 있다.

⑤ (나)에서 ‘먼저 냉장고 문을 연다. 그 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재료를 찾아낸다. 그리고 밥과 함께 프라이팬에서 볶아 낸다. 볶음밥 완성이 다.’를 통해 조리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조리의 단순함을 강조하고 있다.

06 ② | 다양한 볶음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주재료인 쌀 때문이 아니라 밥과 만나는 재료 때문이다.

07 ② | 정성을 다해 만든 요리의 만족도가 높다는 내용은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으며 자립 요리로서의 볶음밥의 매력과도 관련이 없으므로 발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08 ② | 글쓴이는 ‘자립할 충분한 조건’으로 실패를 통해 자신만의 궁극의 볶음밥 요리법을 완성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것은 수많은 실패를 극복하면서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09 ③ | ‘부각’은 ‘어떤 사물을 특징지어 두드러지게 함.’을 뜻한다. ‘덮어 감추거나 가리어 숨김.’은 ‘은폐’의 의미이다.

10 실패를 통해 완성해 가는 것 | 볶음밥을 만드는 과정과 어른이 되는 과정에는 실패를 이겨내며 완성해 간다는 공통점이 있다.

내신 대비 문제

본문 233~236쪽

- 01 ② 02 ⑤ 03 ① 04 ④ 05 ④ 06 ②
07 ② 08 ② 09 ③ 10 해설 참조

주관식 ↗ ↗ 1 요리, 어른, 수필 2 인쇄, 영상, 인터넷, 인쇄
3 요리 4 재료, 기술, 음식물 쓰레기, 설거짓거리, 창조적
5 유추, 실패, 어른

01 ② | 글쓴이는 일상에서 직간접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요리와 관련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수필로 글쓴이가 일상에서 보고 들은 경험을 소재로 주관적으로 서술한 글이다.

③ (가)에서 동물과 사람, (나)에서 어린아이와 어른을 대조하고 있으나, 대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④ ‘통념’은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으로 이 글은 어른이 되는 과정과 요리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밝히고 있을 뿐 대상에 대한 일상적인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⑤ 이 글에서 타인의 생각과 비교하여 글쓴이가 깨달은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02 ⑤ | (마)에서는 볶음밥이 자립 요리를 위한 조건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인 재료를 구하기 쉬워야 한다는 것을 충족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03 ① | (가)에서 동물은 그저 생존하기 위해 먹지만 사람의 먹는

대단원 종합 문제

본문 237~241쪽

- 01 ③ 02 ① 03 ② 04 ④ 05 ③ 06 ②
07 ② 08 ② 09 ① 10 ⑤ 11 ② 12 ④

01 ③ | ⑦은 공동체 차원에서 중요하게 간주하는 사회·문화적 가치 측면에서 문학을 감상하는 것을 말하는데, ③은 요리를 통해 발견한 개인적인 재미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⑦과 관련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02 ① | [A]에서 화자가 동남아인 두 여인의 이야기를 엿듣는 것은 인간적 호감이 아닌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인식과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답 풀이 ② '산그늘'은 두 여인의 고달픈 삶을 나타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③ 잠꼬대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 말'이라고 한 데서 화자가 느끼는 이질감이 드러난다.

④ '내가 왜 공연히 호기심 가지는가'를 통해 화자가 동남아인 두 여인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바라본 것을 반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한국말을 쓰는 동남아인 두 여인에게 친근감과 연민의 감정을 느끼며 그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임을 깨닫고 있다.

03 ② | ⑥는 문학 작품의 외재적 요인들은 배제한 채 작품 속 화자를 중심으로 감상하는 절대론적 관점이다. 작가가 작품에서 보여 주고자 한 것에 초점을 두고 감상하는 것은 작가를 중심으로 감상하는 표현론적 관점이다.

오답 풀이 ① ⑥는 작가가 문학 작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를 두고 해석하는 표현론적 관점으로, 이에 따라 결혼 이후 여성을 바라보는 작가의 생각이 작품에 반영되었다고 감상한 것은 적절하다.

③ ⑥는 문학 작품의 외재적 요인들은 배제한 채 작품의 언어적 특징, 비유, 문체, 정서 따위의 내재적 요소들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절대론적 관점으로, 이에 따라 작품 외적 요인은 배제한 채 제목의 의미를 감상한 것은 적절하다.

④ ⑥는 문학 작품이 독자와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효용론적 관점으로, 이에 따라 독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치에 대해 감상한 것은 적절하다.

⑤ ⑥는 문학 작품이 현실을 거울처럼 반영한다는 전제 아래 작품을 해석하는 반영론적 관점으로, 이에 따라 작품이 결혼 이후를 차별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하는 현실을 담고 있다고 보는 감상은 적절하다.

04 ④ | (나)에서 실패를 통해 자신만의 볶음밥 요리를 완성하면 어른이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실패를 이겨내고 자신만의 세계관을 갖추면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것이지 더 이상 실패를

하지 않으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05 ③ | (나)의 P는 무기력한 지식인이지만 무기력한 지식인을 비판하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고, 사회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지도 않다.

06 ② | (가)에는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지식 계급의 취직난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참고할 때 (나)에서 P가 아들을 학교 공부를 시키는 대신 인쇄소에 보내는 것은 지식인의 취직난이 계속될 것이라고 여겨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각 전문학교 출신자의 취직 상황은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보전과 연전을 합하여 100여 인 중에 이미 취직의 약속이 있는 자는 15% 미만이라 한즉 나머지 85%는 역시 무직의 부류에 편입될 것이요'라고 하였으므로 전문학교는 취직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에서 전문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나)에서 P는 교육보다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전문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기술을 배운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에서 '둘째는 취직난이니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지식 계급의 생활난의 별명이다.'를 통해 중등 교육을 받은 사람의 취직난이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에서 동경 유학보다 국내 전문학교의 교육 여건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07 ② | A가 "보통학교도 아니 마친 자제를 공장엔 보내요?"라고 한 것은 P의 아들이 공장에 보내기에 너무 어리다는 의도일 뿐, 인쇄소 일을 배우려면 보통학교는 마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08 ② | P는 S가 전한 창선이 외할머니의 말이 이혼한 아내의 조종인 줄 알기 때문에 화가 났으나, S에게 아내의 속셈을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다.

09 ① | 고등 교육을 받기 위해 자식을 서울로 보내려는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은 찾아볼 수 없다. 창선이가 서울로 온 것은 고등 교육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10 ⑤ | 볶음밥과 대응하는 소재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볶음밥을 통해 어른이 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11 ② | (마)에서 밥이 자신의 존재를 부각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거의 모든 재료를 이용해 다양한 볶음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재료의 중요성을 언급하기 위

한 것은 아니다.

- 12 ④ | 이 글은 요리와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한 수필이므로,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과 깨달음을 이해하고 정리하며 읽는다. 또한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읽으면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제시된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평가하며 읽는 것은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서술형 종합 문제

분문 242쪽

- 01 예시 답안 ⑦은 생각이나 감정 등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사물이나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여 의도를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을 사용된 표현으로, 낯선 타국에서 살아가는 동남아인 두 여인의 힘든 삶을 나타낸다.

출제 의도 작품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이 작품에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생각이나 감정을 사물이나 상황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 나타난다. ‘나무 우거진 비탈에 / 산그늘 깊었다’에서는 위태롭고 어두운 산그늘의 이미지를 통해 낯선 타국에서 살아가는 동남아 여인들의 힘든 삶을 표현하였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객관적 상관물’이 사용됨을 밝히고 그 기능과 의미를 모두 제시한 경우	4
	위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한 경우	2
형식과 표현	110자 내외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1

- 02 예시 답안 ⑮은 팔리기를 기다리는 기성품처럼 일자리를 찾아 전전하는 식민지 지식인의 삶을 의미한다. 작가는 이를 통해 식민지 조선의 현실과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을 비판하고 있다.

출제 의도 이 소설의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제목 ‘레디메이드 인생’의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올바로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⑮의 의미를 밝히고 작가가 비판하는 대상을 바르게 제시한 경우	4
	위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한 경우	2
형식과 표현	110자 내외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1

- 03 예시 답안 실패를 통해 볶음밥 요리법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어른이 되는 과정을 유추하고 있다. 실패를 극복하며 성장할 때 비로소 자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제 의도 이 글에 나타난 유추의 과정과 진정한 자립의 의미를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이다. 글쓴이는 자신만의 볶음밥 요리를 완성하는 것은 실패를 이겨내고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한 어른이 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유추의 과정을 바르게 제시하고 이유를 적절하게 밝힌 경우	4
	유추의 과정을 적절하게 제시했으나 글쓴이의 의도를 바르게 제시하지 못한 경우	2
형식과 표현	80자 내외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1

6~8단원 실전 대비 중간고사

실전 대비 중간고사 1회

본문 247~252쪽

- | | | | | |
|------|------|----------|----------|------|
| 01 ④ | 02 ② | 03 ② | 04 해설 참조 | 05 ① |
| 06 ④ | 07 ④ | 08 해설 참조 | 09 ② | 10 ④ |
| 11 ④ | 12 ② | 13 ① | 14 ② | 15 ① |
| 17 ⑤ | 18 ② | 19 해설 참조 | 20 ① | |

01 ④ | 피동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을 의미 한다. ‘어린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다.’는 누군가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도록 시켰다는 의미이므로 피동 표현이 아니다.

02 ② |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서술어의 객체가 높여야 할 대상임에도 높이지 않은 잘못된 문장 표현이다. 부사어 ‘어머니께’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서술어의 객체를 높여서 ‘아름다운 꽃을 드리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와 유사한 성격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②이다. 서술어의 객체인 ‘선생님’을 높여서 ‘선생님께 여쭤봐’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03 ② | ㄴ에 쓰인 ‘하게체’는 격식체 상대 높임법에 해당한다. 격식체 상대 높임법은 의례적인 상황에서 쓰는 표현으로 청자와의 심리적 거리가 먼 것을 나타내며 ‘해라체, 하게체, 하오체, 하십시오체’가 있다. 비격식체 상대 높임법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쓰는 표현으로 청자와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것을 나타내며 ‘해체, 해요체’가 있다.

04 예시 답안 | ‘할아버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대상인 ‘눈’을 높여 문장의 주어인 ‘할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높임 표현이 쓰였다.

출제 의도 문장의 주어와 밀접하게 관련된 대상을 높여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법인 간접 높임을 파악하는 묻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문장에 쓰인 단어를 활용하여 어떤 높임 표현이 쓰였는지 설명한 경우	6
	어떤 높임 표현이 쓰였는지 설명했으나 문장에 쓰인 단어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3
형식과 표현	60자 내외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1

05 ① |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에는 잘못된 문장 표현

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라겠습니다.’와 같이 쓰는 것은 시간 표현이 올바르지 않은 문장 표현이다.

- 오답 풀이** ② ‘입급되셨습니다’는 잘못된 주체 높임 표현으로 ‘입급되었습니다’로 고쳐야 한다.
 ③ ‘불려졌다’는 이중 피동이 쓰인 경우로 ‘불렸다’로 고쳐야 한다.
 ④ ‘하겠다라고’의 ‘라고’는 직접 인용문에 사용되는 조사이므로 간접 인용문은 ‘하겠다고’로 나타내야 한다.
 ⑤ 시제 표현이 잘못된 경우로 ‘도착하지 않았습니다’로 고쳐야 한다.

06 ④ | ㄴ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태풍이 이웃 나라를 휩쓸었다.’ 이므로, ‘태풍’에는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로 바꾸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그의 ‘열려졌다’는 ‘열다’에 피동 접미사 ‘-리-’와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② 그을 능동문으로 만들면 ‘친구가 그 문을 열었다.’이다.
 ③ ㄴ의 ‘휩쓸렸다’는 ‘휩쓸-+-리-+-었-+-다’로 피동 접미사 ‘-리-’가 쓰였다.
 ⑤ ㄷ의 ‘풀렸다’는 용언에 ‘-어지다’가 결합된 ‘풀어졌다’로 나타낼 수도 있다.

07 ④ | ‘아프셔서’는 삼촌의 신체인 ‘발’을 높이므로 간접 높임, ‘모시고’는 서술의 객체인 목적어를 높이므로 객체 높임, ‘다녀왔어요’는 듣는 사람을 높이는 것으로 상대 높임이다. 하지만 서술어의 주체를 직접 높이는 직접 높임은 사용되지 않았다.

08 예시 답안 | 그은 능동문으로 규칙을 시행하는 주체인 ‘학교’가 드러난다. ㄴ은 피동문으로 시행되는 대상인 목적어 ‘규칙’이 주어로, 동사가 피동사로 바뀌었다. 따라서 그을 ㄴ으로 바꿔쓰면 동작의 주체인 ‘학교’를 숨기고 ‘규칙’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출제 의도 능동문과 피동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문제이다. 능동문과 비교하여 피동문이 사용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각 문장의 종류와 특성을 밝힌 뒤 능동문과 피동문의 주어가 다르다는 것과, 피동문에서 동작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강조되고 있음을 설명한 경우	6
	위 기준 중 두 가지만 충족한 경우	4
	위 기준 중 한 가지만 충족한 경우	2
형식과 표현	130자 내외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1

09 ② | 그은 발화시와 사건시가 동일하고, 그은 발화시보다 사건

시가 앞서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10 ④ | ‘언니는 그 사실을 철저히 믿고 있다.’는 어떤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진행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시제와 사건이 일치한다.

- 11 ④ | 이 글은 퇴고의 중요성과 그 방법을 설명한 수필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는 한편 글쓴이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 12 ② | ㉠은 간접 인용이 사용된 문장으로 인용격 조사 ‘고’가 나타난다. ‘라고’는 직접 인용에 사용되는 조사로 직접 인용은 조사 ‘(이)라고’ 앞에 큰따옴표를 활용하여 인용하는 문장을 그대로 제시한다.

- 13 ① | 퇴고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위장이란 본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가리키므로 이 글에서 ⑧ ‘은폐(隱蔽)’는 ‘덮어감추거나 가리어 숨김.’의 의미인 단어이다. ‘숨어서 나오지 아니함.’은 ‘은폐(隱閉)’의 의미이다.

- 14 ② | (가)에서 ‘퇴고는 글쓰기의 처음이면서 중간이면서 마지막이면서 그 모든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퇴고를 글쓰기의 마지막 단계라고만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5 ① | 이 글은 〈진달래꽃〉이라는 친숙한 작품을 예로 들고 있으며(ㄱ), 〈진달래꽃〉의 초고와 이후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ㄴ).

오답 풀이 ㄷ. 이 글은 ‘해라체’와 같은 격식체가 나타난다.
ㄹ. 어려운 용어를 풀어 설명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16 ⑤ | ㉠은 ㉠의 문장 순서와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문장의 배열을 바꾸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7 ⑤ | 앞의 내용에서 서둘지 말고 시가 뜰이 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고, 뒤의 내용에서는 어느 정도 완성했다고 생각하면 주변 사람에게 보여 주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였으므로 두 내용을 병렬적으로 이어 주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그리고’가 가장 적절하다.

- 18 ② | 이와 같은 피동 표현이 사용된 것은 ⑧ ‘발표되었다’와 ⑨ ‘있게 된 것이다’이다. ⑩ ‘살렸다’와 ⑪ ‘줄였으며’는 사동사이다.

- 19 예시 답안 퇴고를 할 때에는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출제 의도 서로 다른 글에 나타난 ‘퇴고’에 대한 시각의 공통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A]에 제시된 단어를 활용하여 끊임없는 퇴고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한 경우	6
	공통점을 파악했으나 [A]에 제시된 단어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3
형식과 표현	50자 내외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1

- 20 ① | 예상 독자가 초등학교 학생이므로 어려운 어휘를 쉬운 단어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며(ㄱ), 글의 주제가 범고래의 사냥 방법의 특징을 소개하는 것이므로 시각 자료를 통해 범고래의 사냥 방법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는 것이 적절하다(ㄴ).

오답 풀이 ㄷ. 이 글의 주제는 범고래의 사냥 방법을 소개하는 것으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를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ㄹ. 예상 독자가 초등학생이므로 전문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고래와 상어의 차이점을 부각하는 것도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다.

실전 대비 중간고사 2회

본문 253~259쪽

- 01 ④ 02 ③ 03 ① 04 ⑤ 05 ⑤ 06 ⑤
07 ② 08 해설 참조 09 ② 10 해설 참조
11 ② 12 ③ 13 ② 14 ② 15 ④
16 해설 참조 17 ④ 18 ② 19 해설 참조 20 ⑤

- 01 ④ | (다)에서 방송 진행자는 구체적인 대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청취자의 이해를 돋고 있다.

- 02 ③ | 진행자는 청취자들에게 듣기·말하기 방법이 친구와 서로 달라 고민이 생긴 기찬이의 사연을 소개한 후, 기찬이에게 대화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려 주고 있다. 하지만 기찬이를 위로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지는 않았다.

03 ① | 기찬이는 친구가 “목마르지 않아?”라고 질문한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기찬이는 친구가 약속 장소까지 걸어 온 사실을 알지만 그것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③ 기찬이는 친구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 친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④ [A]에서 어떤 비언어적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

⑤ 기찬이가 친구의 질문에 “별로. 나오기 전에 우유 마셨어.”라고 말한 것은 친구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질문에 엉뚱하게 답한 것은 아니다. 친구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이후에 기찬이가 우스갯소리를 한 것에 대해서이다.

04 ⑤ | ⑤의 “시청으로 가려면 어디서 내려야 하나요?”라는 질문은 목적지인 시청으로 가는 길을 몰라서 버스 기사에게 묻는 말이므로 화자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나머지는 모두 의도를 간접적으로 돌려 말한 표현이다.

05 ⑤ | (라)에서 방송 진행자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기찬이가 친구와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만을 전달하기보다는 친구의 입장이나 마음을 해아리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06 ⑤ | ‘현혈은 사랑의 선물입니다.’에서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며 현혈 참여를 권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당신도 이웃들에게 작은 사랑을 나눠 주세요.’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당신의 현혈이 생명을 살립니다.’에서 현혈 참여를 간접적으로 권유했지만 비유적 표현이 활용되지 않았다.
② 나눔을 권하고 있을 뿐 현혈 참여를 권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현혈을 ‘희망의 등불’에 비유하였지만 ‘현혈 참여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에서 현혈 참여를 직접적으로 권하고 있다.
④ ‘현혈에 동참합시다.’에서 현혈을 권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나타난다.

07 ② | <보기 1>에 따르면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해 주고,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열린 질문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②는 ‘아, 너도 보고서 작성하고 싶었구나.’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하는 자세가, ‘네가 보고서 작성성을 맡고 싶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니?’에서 열린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자세가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① 영희의 입장을 고려할 뿐 은수의 입장은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③ 영희에게 양보할 것을 요구하는 발언이므로 은수의 입장을 인정해

주는 자세와 거리가 멀다.

④ 은수의 생각을 이해하지만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자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선생님께 여쭤보자는 의견을 제시할 뿐이므로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해 주거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08 예시 답안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하면 상대방과 자연스레 대화를 이어 나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유대감을 쌓을 수 있으며, 관계가 서먹해질 염려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출제 의도 간접적인 말하기의 장점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유대감을 쌓을 수 있으며, 관계가 불편해질 염려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적절하게 설명한 경우	6
	위 내용을 부분적으로 제시한 경우	3
형식과 표현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하면 ~ 장점이 있다.’의 형식으로 쓰지 않은 경우	각 -1
	90자 내외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09 ② | [자료 1]에서는 대놓고 직접 말하지 않는 충청도 사람들의 특성을 알 수 있고, [자료 2]에서는 성별에 따른 표현 방식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료 1]과 [자료 2]를 통해 말하기 방식이 지역과 성별에 따라 다양함을 알 수 있다.

10 예시 답안 첫째, 상대방이 어떤 말하기를 즐겨 하는지 파악한다. 둘째, 상대방의 말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생각해 본다. 셋째,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을 지닌다.

출제 의도 글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조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6
	조건 세 가지 중 일부를 부족하게 서술한 경우	각 -1
형식과 표현	서수사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각 -1
	100자 내외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11 ② | (가)에서 협상의 개념과 필요성(ㄷ)을 설명하였고, (나)에서 협상의 절차와 원리(ㄱ)를 밝히고 있다.

12 ③ | 이 글에서 협상의 변천 과정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바)에서 협상에 임하는 바람직한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나)에서 협상의 절차는 ‘시작–조정–해결’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④ (가)에서 사람들은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갈등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⑤ (다), (라)에서 갈등의 유형에 따른 해결 전략을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13 ② | (다)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방법은 갈등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14 ② | ①의 ‘보내다’는 ‘시간이나 세월을 지나가게 하다.’의 뜻이다. ②의 ‘보내다’도 이와 같은 뜻으로 쓰였다.

오답 풀이 ①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다른 곳으로 가게 하다.’의 뜻이다.

③ ‘일정한 임무나 목적으로 가게 하다.’의 뜻이다.

④ ‘상대편에게 자신의 마음가짐을 느끼어 알도록 표현하다.’의 뜻이다.

⑤ ‘(시집)이나 ‘장가’와 함께 쓰여 결혼을 시킨다.’의 뜻이다.

15 ④ | 문맥상 ①에는 상대방의 입장이나 처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된 말이 들어가야 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는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므로 ①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자기 논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이다.

②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③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⑤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산의 옥돌을 가는 데에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본이 되지 않은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자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6 **예시 답안** 설악산과 동해에 모두 인접한 속초에 가기로 결정하였다.

출제 의도 협상을 구체적인 사례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을 살피고 결론을 파악하도록 한 문제이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라)를 바탕으로 속초에 가기로 결정한 것과 그 근거를 제시한 경우	5
	근거를 부족하게 제시한 경우	3
형식과 표현	제시된 문장 형식으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30자 내외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각 -1

17 ④ | 협상 과정에서는 상호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해야 한다. 하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18 ② | ②는 서로 마주보며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①의 관점을 반영하였다. 또 ‘등을 돌리면’과 ‘서로를 보면’, ‘멀어지지만’과 ‘가까워집니다.’에 대조의 표현법이 드러난다.

오답 풀이 ① ①의 관점을 반영했지만 역설적 표현만 쓰였으며 대조의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④ ①의 관점을 반영했지만 대조의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편을 가르면’과 ‘편을 버리면’에서 대조의 표현 방법이 나타나지만 지역 갈등을 해소하자는 내용이므로 ‘올바른 협상 태도’라는 주제에서 벗어나 있다.

19 **예시 답안** 주장이나 요구의 바탕에 깔린 실제 관심사나 욕구가 무엇인지 주목한다.

출제 의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마)에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갈등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원리는 곁으로 드러난 주장이나 요구보다는 실제 관심사나 욕구가 무엇인지 주목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마)의 내용을 참고하여 협상의 원리를 적절히 설명한 경우	6
	(마)의 내용을 참고했으나 협상의 원리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 경우	3
형식과 표현	40자 내외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1

20 ⑤ | 힙합 동아리 부장은 하루 두 시간씩 3일 이상의 연습 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선결 조건을 내세운 뒤, 그런 조건이 수용된다면 공연 순서는 욕심 내지 않겠다고 양보안을 제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실전 대비 중간고사 3회

본문 260~266쪽

- 01 ② 02 ③ 03 ④ 04 ⑤ 05 ③
06 해설 참조 07 ⑤ 08 ② 09 ④ 10 ④
11 ④ 12 해설 참조 13 ④ 14 ④ 15 ③
16 ③ 17 ③ 18 ④ 19 ③ 20 해설 참조

01 ② | (가)는 ‘나’를 버리고 가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나)는 죽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02 ③ | (가)에서 화자의 감정을 빗대어 표현한 대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님’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② ‘가시리잇고’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④ 후렴구인 ‘위 증즐가 대평성디’는 이별을 마주한 시적 정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⑤ 의문의 형식인 ‘가시리잇고’가 되풀이되면서 이별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나타나고 있다.

03 ④ |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를 통해 죽은 아이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화자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04 ⑤ | ④에서 ‘아아’라는 감탄사는 죽은 아이가 ‘산새’가 된 것에 대한 경탄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한 비통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05 ③ | ‘유리창’은 이승과 저승의 두 세계를 연결시키는 매개체인 동시에 이승과 저승의 교류를 막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외롭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유리창’이 부정적 상황을 이겨 내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제재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06 **예시 답안** ‘화자를 서럽게 하는 임’을 의미하기도 하고, ‘서러워하며 떠나는 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출제 의도 시어의 의미는 시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설온 님(서러운 님)’ 역시 ‘서러움’의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시어의 이러한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화자와 ‘님’의 입장에 따른 두 가지 의미를 적절히 서술한 경우	6
	화자와 ‘님’의 입장에 따른 두 가지 의미 중 한 가지만을 적절히 서술한 경우	3
형식과 표현	40자 내외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1

07 ⑤ | (가)는 화자의 여성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을 뿐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구성을 나타나지 않았다.

08 ② | 화자는 금강대에서 소향로, 대향로를 굽어본 뒤 진혈대에 올랐다. 따라서 금강대에서 소향로, 대향로로 이동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행장(行裝)을 다 썰티고 석경(石逕)의 막대 디피’에서 간편한 차림으로 산으로 오르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호의현상(縞衣玄裳)이 반공(半空)의 소소 뜨니 / 서호(西湖) 넷 주인(主人)을 반겨서 넘노는 듯’에서 학이 자신을 반긴다고 여기며 물아일체의 경지를 보여 주고 있다.
④ ‘어와 조화옹(造化翁)이 현수토 현수 훌샤’에서 조물주의 솜씨에 대한 감탄이 드러난다.
⑤ ‘진혈대(眞歇臺) 고터 올나 안조마리’와 ‘개심대(開心臺) 고터 올나’를 통해 화자가 산봉우리를 바라보는 곳이 진혈대와 개심대임을 알 수 있다.

09 ④ | 공감각적 이미지는 둘 이상의 심상이 함께 쓰이며 감각의 전이가 일어난 표현을 말하는데, ‘섯돌며 뿐는 소리’는 폭포가 섞여 돌면서 뿐는 소리라는 뜻으로 감각의 전이가 일어난 표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0 ④ | 지조와 절개가 높은 혈망봉과 망고대를 바라보며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화자는 망고대와 혈망봉의 모습에서 충신의 모습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② 자연에서 은거하는 삶에 대한 자긍심이 아닌, 충신의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나타난다.
③ 화자는 높이 솟은 봉우리를 보며 절개를 지키는 신하가 되어 직분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⑤ 백성과 어울리는 임금의 모습이 아니라 화자 자신이 지향해야 할 바를 떠올리고 있다.

11 ④ | ④은 ‘오르지 못하거나 내려감이 이상할까?’이라는 뜻으로, ‘녀 디위’, 즉 공자의 높은 정신적 경지에 이를 수 없으니 내려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연을 예찬하는 태도를 나타낸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2 **예시 답안** ‘풀(풀)’은 민중을 의미한다. 즉 화자는 음지에 살고 있는 풀들을 다 살려 내겠다며 선정에의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출제 의도 (가)는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된 작가가 금강산과 관동 팔경을 유람하며 그 경치에 대한 감탄과 정감을 노래한 가사로, 관리로서의 현실 인식과 개인으로서의 풍류 사이의 갈등이 나타난다.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인식과 가치관을 파악하여 정리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작가의 신분을 고려하여 '플'이 지칭하는 대상과 화자 의 의지를 서술한 경우	6
	위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한 경우	3
형식과 표현	60자 내외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1

13 ④ | (나)는 근대화의 상징인 경부 철도의 개통을 찬양하는 노래이다. 따라서 개화된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아닌 예찬적 태도가 나타난다.

14 ④ | (나)에서는 근대화의 상징인 경부 철도에 대한 예찬이 드러나지만 <보기>에서는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드러나 있다.

15 ③ | 작품 속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인 권 씨를 보며 그의 삶의 모습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권 씨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②, ④ '나'는 권 씨의 삶과 모습을 관찰하여 주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⑤ '나'는 사건의 관찰자이므로 전후 사정과 인물의 심리를 모두 파악하지는 못한다.

16 ③ | '나'가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반성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현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탓으로 돌리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17 ③ | '나'는 돈을 빌려달라는 권 씨의 말을 듣고 자신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생각하다가 권 씨가 갚을 능력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깨닫자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하고 있다. 즉 ⑤에서 '나'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지,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억지로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다.

18 ④ | 권 씨는 언덕을 내려갈 때 '작달막한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면서' 기운 없이 걸어가고 있다. 따라서 급박한 분위기의 음악보다는 침울한 분위기의 음악이 어울릴 것이다.

19 ③ | 이 소설이 개인과 사회의 대결 구도를 그리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나'와 권 씨의 갈등으로 상징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권 씨에 대해 잔잔한 연민의 태도를 갖고 있다.

20 **예시 답안** 권 씨가 부탁을 거절당한 순간에도 얼굴에 흐르는 진땀을 닦는 대신 오른발을 들어 바짓가랑이에 구두를 닦는 것은 끝까지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는 심리를 나타낸다. 따라서 권 씨가 ⑤와 같이 말한 이유는 돈을 빌리지 못해 상처 입은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출제 의도 인물의 행동을 통해 심리 및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상징적 소재와 대사를 바탕으로 인물의 심리를 파악해야 한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권 씨의 구체적인 행동과 그 의미, 권 씨가 ⑤와 같이 말한 이유를 모두 포함한 경우	6
	위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한 경우	3
형식과 표현	150자 내외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1

9~11단원 실전 대비 기말고사**실전 대비 기말고사 1회**

본문 267~273쪽

- | | | | | |
|------|----------|----------|------|----------|
| 01 ③ | 02 ⑤ | 03 해설 참조 | 04 ② | 05 ③ |
| 06 ① | 07 ⑤ | 08 ② | 09 ⑤ | 10 ③ |
| 12 ③ | 13 ④ | 14 ① | 15 ④ | 16 해설 참조 |
| 17 ⑤ | 18 해설 참조 | 19 ① | 20 ③ | |

01 ③ | 이 글은 글쓴이가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며 얻은 삶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청춘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가 과거를 그리워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② 청춘들이 자신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빨리 출세를 하려고만 하는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을 뿐 대상의 장점과 단점을 열거하며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소년등과를 부려워하는 세태를 다루고 있으나 글쓴이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

⑤ 글쓴이는 교정에 땀 여려 가지 꽃을 화제로 제시하며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삶에 적용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2 ⑤ | 글쓴이는 인생에서의 성취를 꽃에 비유하며 저마다의 꽃이 피는 계절이 따로 있다고 말하고 있을 뿐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03 **예시 답안** 꽃이 피는 시기가 제각각인 것처럼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시기도 각각 다르다.

출제 의도 유추의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꽃의 생태와 인간의 삶의 공통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꽃과 사람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의도를 제시한 경우	6
	글쓴이의 의도만을 제시한 경우	3
형식과 표현	'~처럼'이라는 표현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 40자 내외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각 -1

04 ② | 글쓴이가 '소년등과'를 언급한 이유는 너무 일찍 출세하면 나태해지고 오만해져서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고 경계한 옛사람들의 말을 근거로 일찍 출세하겠다는 욕망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05 ③ | <보기>를 쓴 제자는 취업을 하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다. 이 글의 글쓴이는 꽃이 피는 시기가 따로 있듯이 사람도 전성기가 따로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일찍 취업한 친구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때를 기다리라고 조언해 줄 것이다.

06 ① | [B]에서 글쓴이는 청춘들에게 잠깐의 뒤파짐에 열등감을 느끼지 말라고 위로하며 '그대의 전성기는 아직 멀리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뜻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한자 성어는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인 '대기만성'이다.

오답 풀이 ②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③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암을 뜻하는 말이다.

④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을 뜻하는 말이다.

⑤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는 뜻으로, 세상일은 순환되는 것임을 이르는 말이다.

07 ⑤ | <보기>의 글쓴이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국으로부터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이 글의 글쓴이도 제철에 피는 교정의 여러 꽃들을 통해 발견한 삶의 가치를 전하고 있다.

08 ② | 글쓴이는 가장 일찍 꽃을 피우는 매화처럼 빨리 출세하고 안달하지 말고 자신의 계절을 준비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매화처럼 지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9 ⑤ | 글쓴이는 아직 성공하지 못한 이에게 전성기가 멀리 있는 것이라고 위로하며 이를 성공을 부려워하거나 잠깐의 뒤파짐

에 열등감을 느끼지 말라고 하고 있다. 즉 ⑤는 글쓴이의 관점과 통하는 질문이므로 비판적 질문이라고 볼 수 없다.

10 ③ | 이 글의 글쓴이는 여러 가지 꽃을 예로 들면서 꽃들이 만개하는 계절이 다 다르듯이 사람도 목표를 성취하는 때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재수를 결심한 동생에게 꽃이 늦게 피더라도 언젠가 만개하듯이 늦더라도 목표를 반드시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편지를 쓰는 것은 적절하다.

11 ④ | 이 글에서 글쓴이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의 원인이 청소년 노동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 때문임을 지적한 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적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청소년의 자력화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청소년 노동 문제의 시대별 변화 양상을 고찰한 것은 아니다.

② 외환 위기 이후 청소년 노동 문제가 사회적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만, 문제가 발생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③ 청소년 문제에 대한 다른 나라의 사례와의 비교는 나타나지 않았다.

⑤ 청소년 노동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예상과는 반론이나 재반박은 제시되지 않았다.

12 ③ | 청소년 노동에 대한 논쟁이 오랫동안 지속된 이유에 대한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13 ④ | 글쓴이는 (가)에서 청소년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를 언급하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청소년 노동을 바라보는 잘못된 관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뒤, 청소년 노동을 둘러싼 관점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는 청소년 노동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 글을 집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4 ① | (다)에서 글쓴이는 청소년을 예비 노동자로 바라보는 잘못된 관점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고 합부로 부려도 된다는 사회적 혜용이 뒤따른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⑦의 문제점은 청소년에 대한 노동 착취를 정당할 수 있다는데 있다.

15 ④ | <보기>는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객관적 수치로 보여 주는 자료이다. 청소년 노동자의 탈선 문제는 <보기>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16 **예시 답안** 첫째, 청소년의 노동 필요가 평가 절하된다. 둘째,

청소년 노동이 임시적, 비정상적 상황이 된다. 셋째, 청소년 노동자가 온전하지 못한 노동자라는 관점이 형성된다.

출제 의도 글쓴이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말에 제기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글 속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다)에 제시된 세 가지를 모두 서술한 경우	6
	(다)에 제시된 세 가지 중 일부만 서술한 경우	3
형식과 표현	서수사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각 -1
	100자 내외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17 ⑤ | 이 글의 글쓴이는 청소년 노동을 둘러싼 오해들로 청소년 노동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청소년 노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18 **예시 답안** 청소년 노동이 ‘동정’의 대상이나 ‘비행’이 되게 함으로써 청소년 노동 문제의 원인을 청소년 개인에게 돌린다는 문제점이 있다.

출제 의도 글쓴이가 밝힌 청소년 노동자를 바라보는 양극단의 시각이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러한 관점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동정’과 ‘비행’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②과 ③의 관점이 아닌 문제점을 설명한 경우	6
	위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한 경우	3
형식과 표현	‘~는 문제점이 있다.’의 형식으로 쓰지 않은 경우	각 -1
	70자 내외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19 ① | 글쓴이는 ④(노동법 교육)이 청소년 노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노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노동법을 알아도 써먹을 수 없는 곳에서 일하거나, 노동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한다고 해도 갑을 관계에 종속된 상황에서는 권리 보장을 요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20 ③ | [자료 1]의 설문 자료는 대다수 청소년들이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을 보여 주므로 노동법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자료 2]는 청소년 노동자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원 게시판을 이용하여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한 사례이므로,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호 받은 사례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전 대비 기말고사 2회

본문 274~280쪽

- | | | | | | |
|------|------|----------|----------|----------|------|
| 01 ⑤ | 02 ② | 03 ④ | 04 ① | 05 ① | 06 ③ |
| 07 ③ | 08 ② | 09 해설 참조 | 10 해설 참조 | | |
| 11 ⑤ | 12 ⑤ | 13 해설 참조 | 14 ① | 15 ① | |
| 16 ⑤ | 17 ③ | 18 ④ | 19 ② | 20 해설 참조 | |

01 ⑤ | (다)에서 중세 국어에는 오늘날에 없는 ‘·’라는 모음이 있어서 모음 조화가 대체로 잘 지켜졌다고 하고 있으나 모음 조화 현상은 현대 국어에도 있으므로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 모음 조화 현상이 있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② | ‘니르·고·저’의 현대 국어 표기는 ‘이르고자’이다. 여기서는 앞 음절의 끝소리가 뒤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발음될 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 적기 방식을 확인할 수 없다. ‘니르·고·저’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오답 풀이 ① 오늘날에는 ‘중국과 달라’와 같이 비교 부사격 조사로 ‘과’가 쓰일 자리에 중세 국어에서는 ‘에’가 쓰였다.

③ 오늘날에는 ‘바가’와 같이 주격 조사 ‘가’가 쓰일 자리에 중세 국어에서는 ‘ㅣ’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어두에 ‘뽀’과 같이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 말소리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오늘날에는 ‘스물여덟 자를’에서 ‘자’에 목적격 조사로 ‘를’이 붙는데, 중세 국어에는 ‘쭝’의 양성 모음 ‘·’과 어울리도록 ‘룰’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국어와 비교할 때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알 수 있다.

03 ④ | (가)에서 한글 창체 이전에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 말을 표기하는 한자 차용 표기법이 있었는데 이를 사용해 우리말을 온전히 적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였을 뿐 한글 창체 이후에 한자 차용 표기법으로 우리말을 온전히 적는 데 까지 발전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04 ① | ‘말쓰·미’는 ‘말씀+이’로 형태소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주격 조사 ‘이’가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도 주격 조사 ‘이’가 쓰이므로 ①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5 ① | ⑦은 한글 창체 당시에는 사용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볼 수 없는 단어이므로 ‘전·초’가 적절하다. ⑧은 한글 창체 당시에는 ‘어리석은’이라는 뜻을 지녔지만 오늘날에는 ‘나이가 젊은’이라는 뜻으로 바뀐 ‘어·린’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달·야’는 현대 국어에서도 쓰이고 있으므로 ⑦의 사례가 될 수 없다. ‘전·초’는 오늘날 볼 수 없는 단어이므로 ⑧의 사례가 아니

라 ⑦의 사례에 해당한다.

③ ‘어·린’은 오늘날과 말의 뜻이 달라진 단어이므로 ⑦의 사례가 아니라 ⑤의 사례에 해당한다. ‘훑·배’는 ‘하는 바가’라는 뜻으로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말이므로 ⑤의 사례가 될 수 없다.

④ ‘수·비’는 ‘쉽게’라는 뜻으로 오늘날에도 쓰이고 있는 말이므로 ⑦의 사례가 될 수 없다. ‘전·초’는 오늘날 볼 수 없는 단어이므로 ⑤의 사례가 될 수 없다.

⑤ ‘어·린’은 오늘날과 말의 뜻이 달라진 단어이므로 ⑦의 사례가 될 수 없다. ‘어엿·비’는 한글 창제 당시에는 ‘가엾게’ 또는 ‘불쌍하게’라는 뜻을 지녔지만 오늘날에는 ‘예쁘게’라는 뜻으로 바뀌었으므로 ⑤의 사례에 해당한다.

06 ③ | <보기>의 ‘중생’은 단어의 의미 변화 중에서 의미가 축소된 사례에 해당한다. ‘노·미’의 ‘놈’도 중세에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였지만 지금은 의미가 축소되어 사람을 낮추어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

07 ③ | ‘:사롭’에서 첫음절 ‘:사’는 글자 왼쪽에 점이 두 개이므로 상성이고, 둘째 음절의 ‘롭’은 글자 왼쪽에 점이 없으므로 평성이다. 따라서 첫음절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로, 둘째 음절은 낮은 소리로 발음해야 한다.

08 ② | <보기>의 ⑦(제1단계 변화)는 단어의 둘째 음절의 ‘·’가 ‘—’로 변화한 것인데, ‘오늘 > 오늘’은 ‘오늘’의 둘째 음절 ‘늘’에서 ‘·’가 ‘—’로 변화하여 ‘늘’이 된 것이므로 ⑦의 사례로 적절하다.

09 예시 답안 국어는 음운, 표기, 어휘, 문법 등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출제 의도 이 글을 읽고 과거와 현재의 국어 자료를 살펴봄으로써 국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음운, 표기, 어휘, 문법 등 여러 방면에서 변화를 겪어 왔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다)~(바)의 중심 내용인 음운, 표기, 어휘, 문법의 변화를 모두 언급하여 설명한 경우	6
	(다)~(바)의 중심 내용인 음운, 표기, 어휘, 문법의 변화를 일부만 언급하여 설명한 경우	3
형식과 표현	40자 내외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1

10 예시 답안 중세 국어에서는 음절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었는데, 이들은 현대 국어에서 대부분 된소리로 바뀌었다.

출제 의도 이 글을 바탕으로 국어가 변화하는 양상 중 음운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ㄱ, 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음운상의 변화를 (다)를 바탕으로 설명한 경우	6
	ㄱ, 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음운상 특징과 변화 중 한 가지만 설명한 경우	3
형식과 표현	60자 내외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1

11 ⑤ | (다)에서 미국은 이민자들에게 영어를 배우도록 하여 언어와 문화 단일화 정책을 펴지만 결국 생각을 바꾸었다고 했다. 따라서 미국의 언어 단일화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탐 풀이 ① (다)의 ‘우리말과 우리글은 경제성이 뛰어난 언어와 문자여서,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한국어를 말할 수 있고 한글을 쓸 수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다)의 ‘지식과 정보를 국민이 나누어 가질 수 없는 나라는 경제와 문화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의 ‘1939년부터 이른바 창씨개명을 강제하고 모든 언어생활을 일본어로 하는 한국어 말살 정책을 펼침으로써 우리말은 소멸의 위기를 겪게 되지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의 ‘지금 지구상에는 ~ 이것은 19세기 말의 9,300여 개보다 2,800여 개가 줄어든 수치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⑤ | 이 글은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을 제시하고 국어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지구상의 언어가 소멸하고 있는 상황과 국어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다루고 있으므로 이 글과 관련 있는 언어의 특성은 언어가 시대에 따라 생성, 변형, 소멸하는 특성, 즉 언어의 역사성이다.

13 예시 답안 한국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인구를 늘려야 한다.

출제 의도 이 글을 통해 언어 순위, 즉 언어의 위상이 언어 사용 인구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일상어’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언어 순위를 높이는 방안을 적절히 설명한 경우	6
	‘일상어’라는 단어를 활용하였으나 언어 순위를 높이는 방안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 경우	3
형식과 표현	30자 내외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1

14 ① | (나)는 한글이 일제 강점기 한국어 말살 정책 때문에 소멸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지만 삼일 운동 이후 한국어로 잡지와

신문을 발간하고 한국 문화와 역사 서적을 한글로 기록해 두는 등 한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덕분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표제어로는 ‘한국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다’가 가장 적절하다.

- 15 ① | 빈칸에는 언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언어만 있어서는 안 되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호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속담이 들어가야 한다. ‘외손뼉이 울지 못한다’는 두 손뼉이 마주 쳐야 소리가 나지 외손뼉(한쪽 손바닥)만으로는 소리가 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일은 상대가 같이 응하여야지 혼자서만 해서는 잘되는 것이 아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①이 빈칸에 들어갈 속담으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을 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③ 사람의 욕심이란 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④ 자손이 가난해지면 선산의 나무까지 팔지만 줄기가 굽어 쓸모없는 것은 그대로 남게 된다는 뜻으로,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도리어 제구실을 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정이 들 때는 드는 줄 모르게 들어도 정이 떨어져 싫어질 때는 뚜렷이 알 수 있다는 말, 또는 정이 들 때는 드는 줄 몰라도 막상 헤어질 때는 그 정이 얼마나 두터웠던가를 새삼 알게 된다는 말이다.

- 16 ⑤ | (라)에 우리의 대중음악, 드라마, 영화 등이 세계 곳곳에서 널리 환영받고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나 그 해결책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17 ③ | 글쓴이는 (라)에서 한글이 우리나라의 문화적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강조한 후 한국어와 한글을 더욱 아끼고 생활 속에서 그 가치를 발견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이러한 글쓴이의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③이다.

- 18 ④ | 이 글은 한국어의 높은 위상과 우리말을 지키려는 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글이므로 세계 공용어를 배워야 한다는 말은 이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다원주의나 세계화 시대에 대한 내용도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 19 ② | 이 글은 한글이 한국의 문화에 기여한 점을 밝히고 우리말을 지키는 노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과 <보기>의 작문 계획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②이다. ‘우리말은 민족 문화의 꽃입니다.’에서 비유적 표현이 쓰였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 줍시다.’에서 실천을 권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①, ③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④ ‘한글이 튼튼하게 자랍니다.’에서 비유적 표현이 쓰였지만 ‘우리말 아끼기’를 실천하자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비유적 표현과 ‘우리말 아끼기’ 실천을 권하는 내용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 20 **예시 답안** 지식과 정보를 국민이 나누어 가져야 경제와 문화가 성장할 수 있는데, 한글은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문자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한글로 지식과 정보를 만들어내고 공유, 저장, 유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제 의도 한글이 경제성이 뛰어나 지식과 정보의 공유와 전달에 효과적임을 파악하도록 한 문제이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다)를 바탕으로 경제와 문화가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관련하여 한글의 장점을 지식과 정보의 전달, 공유와 연결하여 설명한 경우	6
	위에 제시된 내용 중 한 가지만 제시한 경우	3
형식과 표현	120자 내외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1

실전 대비 기말고사 3회

본문 281~288쪽

- 01 ② 02 ② 03 ④ 04 ④ 05 해설 참조
06 ③ 07 ③ 08 ① 09 ⑤ 10 ② 11 ②
12 ⑤ 13 ③ 14 해설 참조 15 ⑤ 16 ③
17 ⑤ 18 ③ 19 ① 20 해설 참조

- 01 ② | 화자는 고향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만난 동남아 출신의 결혼 아주 여성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여행을 묘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시의 처음과 끝이 서로 통하는 수미상응의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 시에서는 담담한 어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⑤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지 않았다.

- 02 ② | [장면 1]에서 화자는 기차 안에서 만난 동남아인 두 여인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볼 뿐 그들의 고단한 삶을 염려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03 ④ | ㉠(고향 가는 열차)은 이 시의 시적 공간이며 화자는 고향 가는 열차 안에서 동남아인 여성 두 명과 마주하는 경험을 통해 결혼 이주 여성들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있다. 따라서 ㉠은 화자가 타자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공간이다.

04 ④ | <보기>에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을 차별해서도, 일방적으로 동화시키려 해서도 안 되며 이들과 공존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관점이 나타난다. 이를 가장 잘 반영한 표어는 ④이다.

오답풀이 ① 이주민들을 일방적으로 동화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는 <보기>의 관점은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타자와 공존하려는 자세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갖자는 내용일 뿐 이 시의 주제나 <보기>의 관점과 관련이 없다.

③ 문화 발전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자는 내용일 뿐 이 시의 주제나 <보기>의 관점과 관련이 없다.

⑤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내용이므로 이 시의 주제나 <보기>의 관점과 관련이 없다.

05 예시답안 두 여인은 꿈속에서 떠나온 고향(고국)을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다.

출제의도 시에 나타난 시적 대상의 모습을 바탕으로 심리를 짐작해 보는 문제이다. 화자가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목격한 동남아 출신의 결혼 이주 여성들이 고향 말로 잠꼬대하는 모습을 통해 두 여인이 꿈을 꾸는 동안 떠나온 고향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두 여인의 심리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6
형식과 표현	'두 여인은 ~ 것이다.'의 형식으로 쓰지 않은 경우 40자 내외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각 -1

06 ③ | 팔난은 당시 우리나라의 여러 사회 문제를 나타낸 말로 '여덟 가지의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뜻한다. (가)에서는 팔난 중 생활난과 취직난을 독자들에게 차례대로 소개하고 있다.

07 ③ | P는 무직인 '인텔리'로, (가)에 따르면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지식 계급'에 해당하며 벌이가 없어 생활난을 겪고 있다.

08 ① | <보기>에서 (나)의 작가는 풍자가 녹아 있는 독특한 문체로 식민지 현실을 사실주의적으로 담아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였다. 이 점을 고려하면 (나)에는 당대 현실에 대한 작가

의 풍자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으며 (ㄱ) 작가가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실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므로 사실주의적 경향이 나타난다고 (ㄴ) 평가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ㄷ. 우이는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하는 것으로, 이솝 우화와 같이 인간 사회를 동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 등이 우의에 해당한다. 이 소설에는 우의적 수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ㄹ. 이 소설에는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들의 서글픈 현실이 드러나 있지만 작가가 이를 따뜻한 시선으로 묘사한 것은 아니다.

09 ⑤ | 이 소설은 전지적 시점으로, P가 인쇄소에서 A와 대화를 나누고 창선이를 만나 집으로 함께 돌아오는 동안의 행적을 제시하고 있다.

10 ② | A가 취직을 부탁하려 온 P에게 "뉘 집 애요?"라고 질문하자 P는 자기 아들이라고 대답한다. 이에 A는 P의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니, 정말 그래요?"라고 다시 묻는다. 이로 보아 A는 P의 말을 듣고도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ㄱ). 또한 P는 A의 "뉘 집 애요?"라는 질문에 "내 자식 놈이랍니다."라고 답한 뒤 약간 얼굴이 붉어지는 것으로 보아 A의 질문에 답변을 한 후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ㄷ).

11 ② | ㉠에서 P는 실업자인 자신이 아들을 학교에 보낼 처지도 못되고, 또 학교에 보내봤자 결국 자신처럼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에서 P는 자신이 신식 교육까지 받았지만 결국 실업자로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으므로 자식은 교육을 시키지 않고 인쇄 기술을 배우게 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로 볼 때, ㉠과 ㉡에는 자식만큼은 자신과 같은 실업자로 만들지 않겠다는 P의 심정이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12 ⑤ | 실업자인 P가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인쇄소 견습공으로 취직시키는 것은 P가 인텔리를 양산하고도 외면하는 사회를 불신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나아가 인텔리의 처우에 대한 작가 자신의 간접적인 항의를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다.

13 ③ | S가 창선이의 외할머니가 P에게 전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을 전달하자 P는 옛날의 반감이 솟구쳐 벼락 화를 내고 있다. 따라서 ㉢을 연기할 배우에게 조언하는 말은 ③이 적절하다.

14 예시답안 P와 같은 실업자가 많았던 이유는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의 영향과 일제의 왜곡된 교육 정책(또는 식민지 사회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소설의 내용과 사회적 배경을 연관

지을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자료 1]에서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의 영향을, [자료 2]에서 일제의 모순적인 교육 정책을 파악해야 한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두 자료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적절히 설명한 경우	6
	두 자료의 내용 중 한 가지만 반영하여 설명한 경우	3
형식과 표현	'~ 이유는 ~ 때문이다.'의 형식으로 쓰지 않은 경우 60자 내외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각 -1

15 ⑤ | 뉴스 보도문에는 뉴스 제작자의 관점이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기자의 말을 통해 자녀의 취업 준비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느라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모 세대를 걱정하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6 ③ | 이 글은 글쓴이가 요리와 관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성찰을 담은 수필이다. 자립 요리로서 볶음밥을 추천하여 볶음밥에 담긴 자신 나름의 철학을 풀어내고 있다.

17 ⑤ | 세상에는 수천 가지의 볶음밥이 있을 수 있다는 앞의 내용을 볼 때, 마찬가지로 볶음밥의 이름과 맛도 다 다르다는 내용이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 사물이 모두 차이가 있고 구별이 있음.'이라는 뜻의 '천차만별(千差萬別)'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움을 이르는 말이다.

②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서로 뒤바뀐다는 뜻으로, 사물의 중요함과 중요하지 않음의 정도 따위가 서로 뒤바뀜을 이르는 말이다.

③ 서로 변론을 주고받으며 옥신각신하거나 말이 오고 가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④ 자기 눈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이다.

18 ③ | '스스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어야만 꼭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에서 필자의 관점이 적절한지 평가하며 읽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요리 외에도 다양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에서 자신이 느낀 점을 나누는 태도가 나타난다.

19 ① | 학습 과제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체 자료를 활용해야 하며 볶음밥 요리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볶음밥 요리법을 소개하기 위해 볶음밥의 재료와 도구들을 매체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은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적절하

다(ㄱ). 볶음밥을 직접 만드는 모습을 촬영하여 보여 주는 것은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볶음밥 요리법을 소개하는 방법이므로 적절하다(ㄴ).

오답 풀이 ㄷ. 볶음밥 외에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다양한 있는 요리법을 소개하는 것은 볶음밥 요리법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ㄹ. 전문가 인터뷰 자료로 볶음밥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나만의 볶음밥 요리법을 소개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20 **예시 답안** 첫째, 구하기 쉬운 재료여야 한다. 둘째, 요리하는 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출제 의도 이 글에 제시된 자립을 위해 필요한 요리의 조건을 볶음밥의 특징에 관한 내용과 대응시킬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볶음밥의 훌륭한 점은 무엇보다 요리하기 위해 별도의 재료를 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에서 첫째 조건을, '볶음밥은 웬만해선 실패하지 않는 요리이다. 조리법이 간단하니까.'에서 둘째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배점
내용	자립을 위해 필요한 요리의 조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6
	자립을 위해 필요한 요리의 조건 중 한 가지만 제시한 경우	3
형식과 표현	서수사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50자 내외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각 -1